



2023 가을

농업·농촌 경제 동향



일반경제 및 농촌경제 동향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특별주제

- 농촌 청년의 생활 여건과 시사점
-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경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내용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형용 lhy2813@krei.re.kr, 배현정 bhj923@krei.re.kr, 김가을 autumnk@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371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7
5. 금융·환율	13
6. 세계경제	16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9
2. 농촌 물가	20
3. 농림어업 취업자	25
4. 농축산물 수출입	27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3
2. 엽근채소	38
3. 양념채소	44
4. 과일	51
5. 과채	59
6. 축산	68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75
2. 음식점업 경기 동향	77
3. 3/4분기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	80
4. 4/4분기 주요 농축산물 예상 구매량	83
5. 채소류 구매 형태	85

특별주제

농촌 청년의 생활 여건과 시사점	89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103

요 약

□ 일반경제 동향

-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성장함.
- 2023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8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64만 명으로 나타남.
- 2023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1% 감소함. 2023년 9월 소매판매는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3.0% 상승한 115.1, 109.6으로 나타났으며,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한 119.1로 나타남.
- 2023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147.4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함.
- 2023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20.5로 전년 동기 대비 15.0% 하락함.
- 2023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35.2로 전년 동기 대비 10.8%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12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하락함.
- 2023년 3/4분기 원/달러, 원/100엔, 원/유로, 원/위안 환율 모두 전기 대비 하락함.
- 2023년 2/4분기 미국, 일본, 유로존의 경제는 각각 전기 대비 2.1%, 1.2%, 0.1% 성장하였으며, 중국의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함.

□ 농촌경제 동향

- 2023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전기 대비 1.0% 증가함.
- 2023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5.5% 상승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2023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였지만,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사료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하락함.
 - 노무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였지만, 경비,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0.3% 하락함.
- 2023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3.1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 개선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0.3% 하락하였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7% 하락하였기 때문임.
- 2023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2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06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함.
 - 순수입액은 약 83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함.

□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 2023년 2/4분기 통계청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함.
-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음식점업체의 2023년 3/4분기 경기 동향은 2.90(5점 척도), 매출 동향은 2.98(5점 척도)로 나타남.
 -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음식점업은 경상지수와 불변지수 모두 각각 0.3%, 5.8% 하락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한식은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한 반면, 외국식은 5.8% 증가함.
- 2023년 3/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건고추는 가격 상승으로 구매량이 감소한 반면, 고춧가루는 증가하였음.
- 2023년 4/4분기 음식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2022년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3/4분기 음식점 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의 국내산 원산지 구매 비중은 2023년 2/4분기 대비 각각 12%, 16%, 21% 증가하였음.
 - 중국산 마늘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점의 중국산 사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3/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매 비중을 조사한 결과, 닭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증가함.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매를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0%), 양배추(97.7%), 배추(94.6%) 등의 순이며, 고추, 마늘, 당근, 무는 1차 가공 형태의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늘 중 통마늘과 깐마늘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다진마늘은 5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별주제

1. 농촌 청년의 생활 여건과 시사점

-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청년이 갖는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연구가 일부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참여 등 종합적인 농촌 청년층의 실태 분석이 부족함. 이에 농촌 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농촌 인구는 향후 지속 감소하고 인구 감소의 상당수는 청년 인구에서 발생하여 농촌의 청년 부족 문제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농촌에는 도시보다 청년이 상대적으로 적고, 성별로는 여성이 더 적었음.
- 농촌 청년의 객관적 생활 지표는 도시보다 열악하지만 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농촌 청년의 직업 선택 기준, 추구하는 삶의 방식(라이프 스타일)이 도시와 다른 점, 그리고 도시보다 적게 드는 생활비와 양호한 가계 건전성 등 농촌 생활 나름의 장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됨.
- 하지만 주거환경, 복지와 문화 여건은 도시보다 열악하여 주거환경 만족도, 문화여가 생활 만족도, 사회참여 만족도 등은 도시보다 낮았음.
- 청년 세대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서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및 농촌 관련 경험 확대가 필요함.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촌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지 않았고, 일자리 만족, 소득·소비 생활 만족, 주거 만족도 등은 오히려 높았음. 농촌에서의 청년들의 삶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농촌 생활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임.
- 복지, 문화, 사회 참여와 관련한 생활 여건 개선, 다양한 농촌 일자리 마련 등의 보완을 통해 농촌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농촌 삶의 장점을 부각하고 이를 실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시절부터 경험하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 농촌은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의 소멸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면이 전체 1,172개 면 중 30.1%에 달하고, 절반이 넘는 면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인구가 감소했음. 농촌 인구 감소는 농촌 내 지역 간 불균형의 이슈이기도 함. 최근 10년(2010~2020년)간 수도권과 도시 근교 지역, 읍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면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였음. 특히 원격 지역에 있는 면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하여 지역의 공동체 유지가 어렵고, 나아가 인구·산업 측면에서 생활 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성까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진단됨.
-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 시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면의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줄면 지역의 보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인구가 2천 명 이하로 줄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약 25%에서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더 나은 생활 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원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기보다 ‘적응’해야 할 삶의 조건임. 농촌의 인구감소 적응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는 소득과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보장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인구감소 시대에는 서비스의 민간 공급이 축소되고 세수 감소, 복지지출 증가, 기존 생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도 유지하기 어려움. 농촌 정책은 인구와 기초생활 서비스의 양(量)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기초생활 서비스의 축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서비스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함.
-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2.5% 증가함.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단위: %

구분	2021				2022 ^p				2023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GDP)	1.8	0.9	0.1	1.4	0.7	0.8	0.2	-0.3	0.3	0.6	0.6(1.4)
민간소비	1.4	2.9	0.4	1.3	-0.6	2.9	1.6	-0.5	0.6	-0.1	0.3(0.3)
정부소비	1.6	3.8	1.5	1.1	0.1	1.0	0.1	2.5	0.4	-2.1	0.1(0.9)
건설투자	-0.1	-0.8	-2.0	1.4	-2.5	-0.6	-0.1	1.3	1.3	-0.8	2.2(4.0)
설비투자	7.8	0.7	-4.1	0.1	-4.2	1.6	7.0	2.4	-5.0	0.5	-2.7(-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	0.9	1.9	1.8	1.1	-0.5	5.0	-2.9	0.9	0.7	0.2(-1.1)
재고증감	0.5	-0.1	-0.2	0.3	-0.4	0.2	0.4	-0.3	0.2	-0.3	0.0(-0.6)
총 수 출	4.4	-0.7	0.3	3.7	3.8	-3.2	0.6	-3.8	4.5	-0.9	3.5(3.2)
총 수 입	6.1	2.0	-0.6	4.2	-1.1	-0.8	5.4	-2.8	4.2	-3.7	2.6(0.0)

주 1.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15년 연쇄가격 기준

3.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2023.10.26.),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가을 연구원(autumnk@krei.re.kr), 이석일 전문위원(dltjrdlf2@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3.10.26.)」를 참고하여 재처리함.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기 대비 증가함.
 - 2023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1% 증가함.
 - 2023년 3/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함.
 -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함.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기 대비 증가함.
 - 2023년 3/4분기 농림어업은 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함.
 - 2023년 3/4분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 1.3% 증가함.
 - 2023년 3/4분기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2% 증가함.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

구분	2021				2022 ^p				2023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농림어업	5.8	-6.7	7.1	1.4	-1.6	-5.1	2.9	1.3	-6.3	5.4	1.0(1.0)
제조업	3.3	-0.1	-0.8	1.5	2.3	-0.2	-0.6	-3.9	1.3	2.5	1.3(1.2)
서비스업	1.2	1.5	0.7	1.6	0.4	1.7	0.6	1.1	0.0	0.3	0.2(1.7)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0.0	1.7	-1.1	4.5	0.3	2.6	2.1	1.2	-0.9	-4.0	-1.5(-5.2)
(운수업)	4.5	4.2	-1.7	2.9	0.0	8.3	-0.8	3.0	-3.9	13.7	0.0(12.5)
(사업서비스업)	0.8	1.1	-0.1	0.9	1.3	1.5	-1.4	1.3	0.9	1.3	-1.0(2.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1.0	2.4	3.3	1.0	1.7	1.3	0.3	1.5	2.9	-0.2	0.9(5.2)
(문화 및 기타)	1.9	1.9	1.5	3.3	1.1	4.5	7.1	-1.9	2.6	-0.8	2.5(2.4)

주 1.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15년 연쇄가격 기준

3.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2023.10.26.),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 고용³⁾

- 2023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약 2,937만 명으로 전기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함.
- 2023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약 2,869만 명으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9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3만 5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만 1천 명, 6만 7천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2만 명, 4만 8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p

구분	2021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8,310	28,922	28,360	29,227	29,143	28,957	28,685	29,493	29,368	0.8
(경제활동참가율)	62.8	63.9	62.7	64.6	64.4	63.9	63.2	65.0	64.7	0.5
취업자	27,273	28,089	27,369	28,347	28,425	28,216	27,767	28,693	28,687	0.9
• 농림어업	1,458	1,526	1,310	1,630	1,661	1,502	1,289	1,625	1,640	-1.3
• 광공업	4,380	4,512	4,489	4,518	4,532	4,512	4,446	4,466	4,474	-1.3
• 건설업	2,090	2,123	2,071	2,164	2,128	2,129	2,051	2,111	2,126	-0.1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451	5,495	5,424	5,486	5,517	5,551	5,546	5,585	5,574	1.0
• 전기·운수·통신·금융	3,358	3,490	3,465	3,498	3,511	3,485	3,514	3,542	3,552	1.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536	10,944	10,610	11,051	11,077	11,037	10,921	11,364	11,322	2.2
실업자	1,037	833	990	880	718	741	918	800	681	-5.2
실업률(계절조정)	3.7	2.9	3.0	2.9	2.8	2.9	2.7	2.6	2.6	-0.2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9월 고용동향(2023.10.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3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
- 2023년 8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0.2%)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Δ 1.1%)와 준내구재(Δ 0.6%)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0.3% 감소함.
- 2023년 9월 소매판매는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동향

단위: %(전기 대비)

구분	2021 ^p	2022 ^p					2023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p	8월 ^p
민 간 소 비	3.6	4.1	-0.6	2.9	1.6	-0.5	0.6	-0.1	-	-
소 매 판 매	5.8	-0.3	-1.2	-0.4	0.6	-1.4	1.1	-0.3	-3.3	-0.3
(내 구 재) ¹	6.3	-3.2	-0.7	-2.9	0.8	-0.1	1.6	0.9	-5.1	-1.1
(준내구재) ²	12.7	2.2	-1.8	1.6	0.0	-4.1	5.0	-3.6	-3.6	-0.6
(비내구재) ³	3.2	0.3	-1.2	0.2	0.7	-1.1	-0.7	0.5	-2.3	0.2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2023.10.13.),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2023.10.13.)」,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08.24.)」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3년 2/4분기 1인 이상(농림어가 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79만 원으로 전기 대비 5.2%,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함.
 - 2023년 2/4분기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하였는데,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하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9%, 0.1%, 21.8% 증가함.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함.

가계소득 변화 추이(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 득	0.4	-0.7	8.0	6.4	10.1	12.7	3.0	4.1	4.7	-0.8
경상소득	1.1	-0.9	8.3	6.1	10.1	12.6	2.6	4.4	4.3	-0.6
(근로소득)	-1.3	6.5	6.2	5.6	10.2	5.3	5.4	7.9	8.6	4.9
(사업소득)	-1.6	3.6	3.7	8.6	12.4	14.9	12.0	0.0	-6.8	0.1
(재산소득)	-14.4	59.7	-23.9	3.9	-2.0	-22.9	28.7	11.6	18.2	21.8
(이전소득)	16.5	-28.6	25.3	3.9	7.9	44.9	-18.8	-5.3	-0.9	-19.6
비경상소득	-26.2	11.1	-10.0	26.5	6.0	16.1	28.4	-7.4	27.8	-12.5

자료: 통계청

- 2023년 2/4분기 2인 이상(비농림어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92만 원으로 전기 대비 6.1%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 2023년 2/4분기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는데,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1%, 1.7%, 19.1% 증가함.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함.

가계소득 변화 추이(2인 이상, 비농림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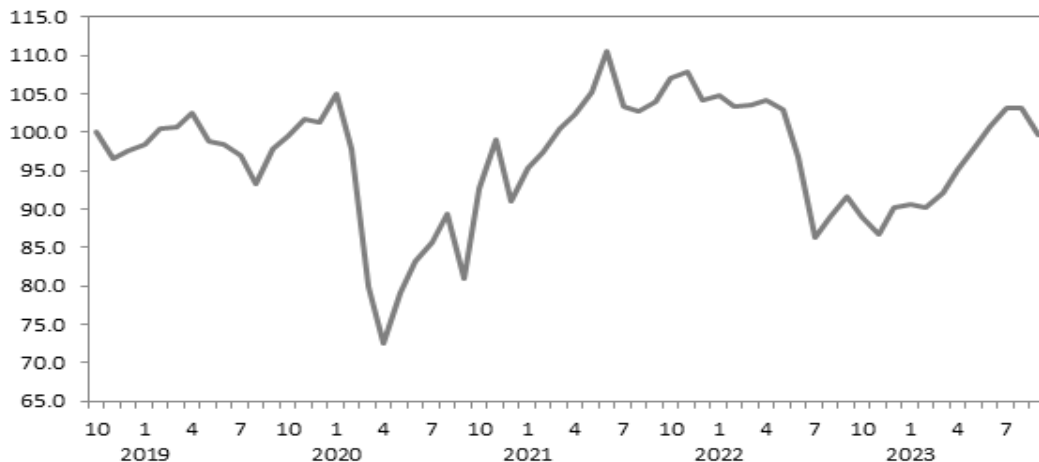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득	-0.7	-1.4	7.6	7.0	11.1	13.4	3.1	4.9	6.7	0.5
경상소득	0.1	-1.5	7.7	6.9	11.5	13.3	2.7	5.1	6.1	1.0
(근로소득)	-3.5	4.9	5.7	5.7	12.6	6.3	5.9	8.7	10.2	7.1
(사업소득)	1.6	5.5	3.3	11.9	10.9	12.7	11.0	0.7	-3.8	1.7
(재산소득)	-12.7	58.1	-27.5	8.9	-6.7	-26.1	15.4	7.0	24.0	19.1
(이전소득)	17.5	-31.4	25.3	5.4	8.3	52.2	-20.6	-7.1	-1.0	-21.9
비경상소득	-30.0	6.3	-1.1	10.9	-7.8	19.2	32.3	-5.3	46.2	-24.9

자료: 통계청

- 2023년 9월 소비자심리지수⁵⁾는 99.7로 전월 대비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5월) 98.0 → (6월) 100.7 → (7월) 103.2 → (8월) 103.1 → (9월) 99.7

월별 소비자심리지수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자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임(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4. 물가6)

- 2023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2.2로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3.0% 상승한 115.1, 109.6으로 나타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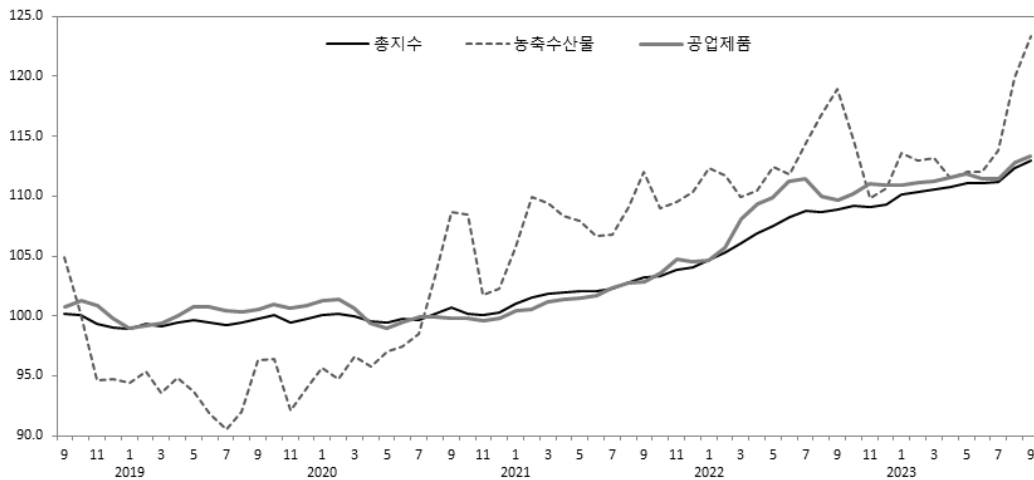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7.7 (5.1)	105.4 (3.8)	107.5 (5.4)	108.8 (5.9)	109.2 (5.3)	110.4 (4.7)	111.0 (3.2)	112.2 (3.1)
상 품	110.0 (6.7)	106.7 (4.7)	110.1 (7.6)	111.4 (7.9)	111.9 (6.5)	112.9 (5.8)	113.2 (2.8)	115.1 (3.3)
농축수산물	112.8 (3.8)	111.3 (2.7)	111.6 (3.6)	116.7 (6.8)	111.7 (1.9)	113.2 (1.7)	111.9 (0.3)	119.1 (2.0)
공업 제품	109.3 (6.9)	106.1 (5.4)	110.1 (8.5)	110.4 (7.5)	110.7 (6.1)	111.1 (4.7)	111.6 (1.3)	112.5 (2.0)
전기·수도·가스	110.2 (12.6)	101.1 (2.9)	106.7 (8.7)	109.0 (15.3)	124.0 (23.1)	129.8 (28.4)	132.7 (24.3)	131.2 (20.4)
서 비 스	105.7 (3.7)	104.2 (3.0)	105.3 (3.5)	106.5 (4.1)	106.9 (4.1)	108.2 (3.8)	109.1 (3.6)	109.6 (3.0)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23.10.05.)」,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23.10.24.)」,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2023.10.17.)」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3년 9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함.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는 각각 전월 대비 2.9%, 0.5%, 5.3% 상승함.
 - 집세, 공공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으며,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하락함.
- 2023년 9월 기준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통신,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상승하였으며, 주류·담배, 보건, 오락·문화, 음식·숙박은 하락함. 교육, 기타 상품·서비스, 의류·신발은 변동 없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2020년=100)



자료: 통계청

- 2023년 3/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9.1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전기 대비 6.4% 상승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는 전년 동기 대비 4.0% 하락한 121.3으로 나타났으며, 곡물, 과일, 기타농산물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14.0%, 5.7% 상승한 99.7, 137.7, 114.0으로 나타남.
 -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로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함.
 -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로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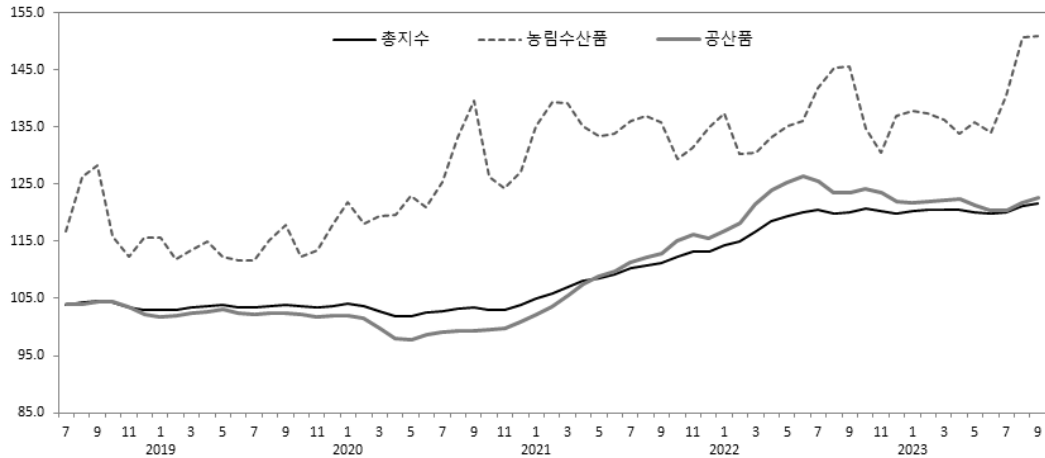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구분	2022					2023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2.8	111.3	111.6	116.7	111.7	113.2	111.9	119.1	2.0	6.4
농산물	110.9	111.3	107.1	117.2	107.9	113.4	108.9	122.4	4.4	12.3
곡물	98.9	103.6	99.8	95.6	96.5	95.8	95.6	99.7	4.4	4.3
채소	110.3	107.2	99.4	126.4	108.1	116.7	105.3	121.3	-4.0	15.2
과일	118.2	120.1	119.4	120.8	112.3	117.6	118.7	137.7	14.0	16.0
기타농산물	109.9	110.2	107.4	107.9	114.0	119.0	114.4	114.0	5.7	-0.3
축산물	119.5	115.2	121.9	121.7	119.0	114.1	117.0	118.2	-2.8	1.0
수산물	104.9	102.7	104.4	103.9	108.7	110.8	110.8	109.1	5.1	-1.5

자료: 통계청

- 2023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함.
 - 2023년 9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등이 내렸으나 축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 2023년 9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8% 상승함.
 - 2023년 9월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주택용전력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8% 상승함.
 - 2023년 9월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1% 하락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2015년=100)



자료: 한국은행

- 2023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6.6으로, 전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9.9% 하락함.
- 2023년 9월 수출물가지수는 119.6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4.9% 하락함.
- 2023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20.5로 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15.0% 하락하였으며,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19.0으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6.4% 하락함.
- 2023년 3/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6.6으로 전기 대비 0.8% 상승, 전년 동기 대비 9.8% 하락하였으며,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9.6으로 전월 대비 1.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9%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o
총 지 수	126.3 (16.6)	119.9 (22.0)	130.5 (23.0)	129.4 (14.5)	125.4 (8.3)	115.8 (-3.4)	115.8 (-11.3)	116.6 (-9.9)	117.6 (-7.9)	119.6 (-8.9)
농림수산물	136.2 (14.5)	130.5 (20.0)	136.7 (21.1)	141.7 (11.3)	135.9 (7.0)	126.9 (-2.8)	123.6 (-9.6)	120.5 (-15.0)	120.5 (-14.7)	119.0 (-16.4)
농 산 물	99.8 (-1.0)	93.0 (-11.9)	112.0 (9.9)	108.6 (0.2)	85.8 (-2.2)	81.5 (-12.3)	78.3 (-30.1)	92.9 (-14.4)	93.1 (-14.6)	89.4 (-6.4)
공 산 품	126.3 (16.6)	119.9 (22.0)	130.4 (23.0)	129.4 (14.5)	125.3 (8.3)	115.8 (-3.4)	115.8 (-11.3)	116.6 (-9.8)	117.5 (-7.9)	119.6 (-8.9)

주 1.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23년 9월 자료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 2023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35.2로, 전기 대비 0.3%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0.8% 하락함.
- 2023년 9월 수입물가지수는 139.7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2.9% 상승, 전년 동월 대비 9.6%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5.8% 하락함.
 - 2023년 9월 기준,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5.7% 상승하였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7% 상승함.
- 2023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6.6으로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2.4% 하락하였으며,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9.1로 전월 대비 1.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3.1% 하락함.
- 2023년 3/4분기 공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1.0으로 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7.3% 하락하였으며, 9월 공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3.4로 전월 대비 1.5% 상승, 전년 동월 대비 7.4%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o
총 지 수	147.9 (25.9)	140.2 (32.4)	152.4 (35.2)	151.6 (24.2)	147.4 (14.1)	137.3 (-2.1)	134.8 (-11.6)	135.2 (-10.8)	135.7 (-9.2)	139.7 (-9.6)
농림수산물	139.9 (19.9)	132.5 (24.8)	144.5 (26.7)	144.4 (19.4)	138.1 (10.1)	127.6 (-3.7)	126.7 (-12.3)	126.6 (-12.4)	127.5 (-10.5)	129.1 (-13.1)
농 산 물	157.6 (27.5)	149.4 (35.4)	163.1 (38.0)	160.7 (25.1)	157.2 (14.3)	144.8 (-3.1)	140.2 (-14.1)	139.5 (-13.2)	139.9 (-12.2)	141.9 (-14.7)
공 산 품	128.8 (15.5)	124.7 (19.7)	130.5 (20.2)	130.6 (14.0)	129.3 (8.7)	123.4 (-1.1)	122.9 (-5.8)	121.0 (-7.3)	121.6 (-5.8)	123.4 (-7.4)

주 1.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23년 9월 자료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⁷⁾

- 2023년 8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감소)함.
- 2023년 8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시장형상품 등이 증가한 반면, 금전신탁,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감소함.
- 2023년 8월 원계열 기준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과 비슷한 수준)함.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추이(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2						202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 ¹	5.3	2.5	-0.4	-3.5	-6.8	-9.0	-11.3	-12.4	-13.0	-13.3	-13.8	-14.0	-12.2	-11.2
M2 ²	8.3	7.5	7.0	6.4	5.9	5.0	4.4	4.1	3.8	3.2	2.3	2.2	2.5	2.2
Lf ³	7.2	6.7	6.2	6.0	5.3	4.8	4.1	3.7	3.6	3.6	2.8	2.5	2.9	2.5
본원통화 ⁴	13.7	9.8	9.0	7.8	4.4	3.6	0.9	0.9	-0.7	-2.2	-0.5	-1.4	-2.9	-1.2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8월 통화 및 유동성(2023.10.17.)」, 「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2023.10.12.)」, 「2023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3.10.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3년 9월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 강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코스피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고채(3년)	4.2	3.9	3.6	3.5	3.5	3.5	3.3	3.3	3.5	3.6	3.7	3.8
회사채 ¹	5.4	5.5	5.3	4.7	4.3	4.2	4.1	4.1	4.4	4.4	4.5	4.6
CD유통수익률 (91일)	3.7	4.0	4.0	3.8	3.5	3.6	3.5	3.6	3.8	3.8	3.7	3.8
콜금리 ²	3.0	3.1	3.2	3.3	3.4	3.4	3.5	3.6	3.6	3.5	3.5	3.6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 중개거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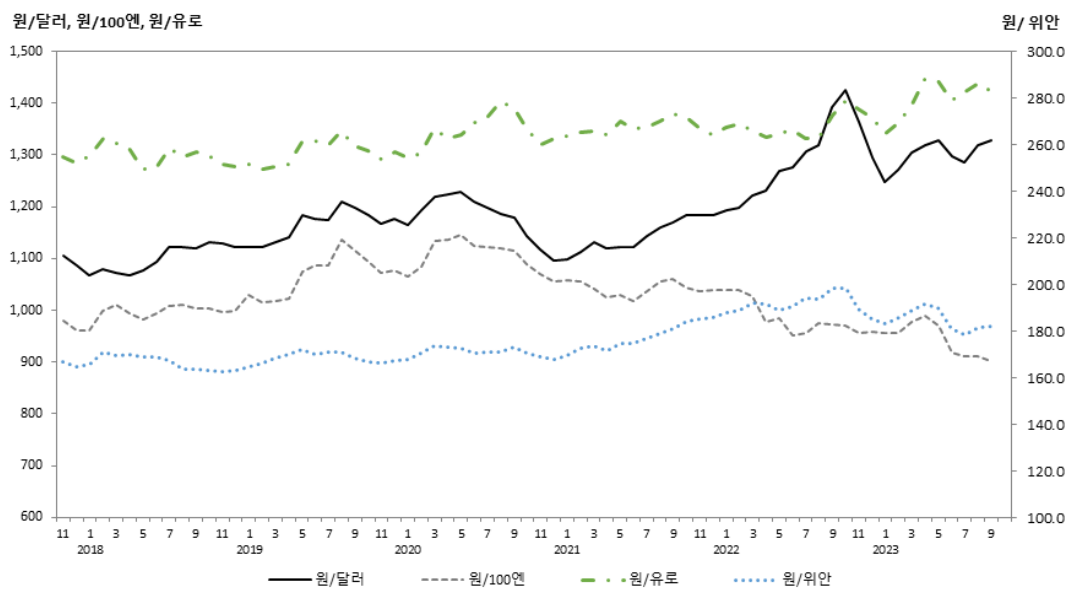
- 2023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0.3% 하락한 1,311원임.
 - 2023년 9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 확대 등 국내 외환수급이 개선되어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중동사태 발발 이후 미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됨.
- 2023년 3/4분기 원/100엔 환율, 원/유로 환율, 원/위안 환율은 각각 909원, 1,428원, 181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5.2%, 0.3%, 3.5% 하락함.
 - 2023년 9월 원/100엔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하락하고 원/위안 환율은 상승함.
- 2023년 9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축소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원/달러	1,144	1,292	1,205	1,260	1,338	1,359	1,276	1,315	1,311	1,318	1,329
원/100엔	1,041	983	1,036	972	968	961	964	959	909	911	902
원/유로	1,353	1,357	1,352	1,342	1,348	1,387	1,369	1,432	1,428	1,439	1,423
원/위안	177	192	190	190	195	191	186	187	181	182	182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2023년 2/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미국 경제는 견조한 고용 및 소비 흐름이 지속되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 및 주택시장 불안 등 리스크가 존재함.
- 2023년 2/4분기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경제는 8월 생산·소비·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부동산 사태 여파로 투자는 부진 흐름이 지속됨.
- 2023년 2/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이후, 일본 경제는 높은 소비자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
- 2023년 2/4분기 유로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유로존 경제는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실물지표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2023.10.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세계 주요국 국내총생산

단위: %

국가	지표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5.9	2.1	-1.6	-0.6	3.2	2.6	2.2	2.1	-	-
	산업생산(전기비)	4.9	3.4	0.9	1.0	0.5	-0.6	-0.1	0.2	1.0	0.4
	소매판매(전기비)	19.6	9.1	3.1	2.7	0.8	0.2	1.1	0.1	0.7	0.6
	실업률(계절조정)	5.4	3.6	3.8	3.6	3.6	3.6	3.5	3.6	3.5	3.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7	8.0	8.0	8.6	8.3	7.1	5.8	4.0	3.2	3.7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8.4	3.0	4.8	0.4	3.9	2.9	4.5	6.3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9.6	3.6	6.5	0.6	4.8	2.8	3.0	4.5	3.7	4.5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2.5	-0.2	3.3	-4.9	3.5	-2.7	5.8	11.4	2.5	4.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9	2.0	1.1	2.2	2.7	1.8	1.3	0.1	-0.3	0.1
일본	실질GDP(전기비)	2.2	1.0	-0.5	1.3	-0.3	0.0	0.8	1.2	-	-
	산업생산(전기비)	5.4	-0.2	0.8	-1.5	3.1	-1.7	-1.8	1.4	-1.8	0.0
	소매판매(전기비)	1.9	2.6	-0.4	1.3	1.3	1.2	2.5	0.5	2.2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2.5	0.9	2.4	2.9	3.9	3.6	3.4	3.3	3.2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5.3	3.3	0.6	0.8	0.3	-0.1	0.1	0.1	-	-
	산업생산(전기비)	8.9	2.3	0.8	0.9	0.0	-0.5	-0.3	-1.0	-1.1	-
	소매판매(전기비)	5.1	0.7	-0.2	-0.8	-0.7	-1.2	0.0	0.0	-0.1	-1.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6.1	8.0	9.3	10.0	8.0	6.2	5.3	5.2

자료: 기획재정부(2023.10.13.),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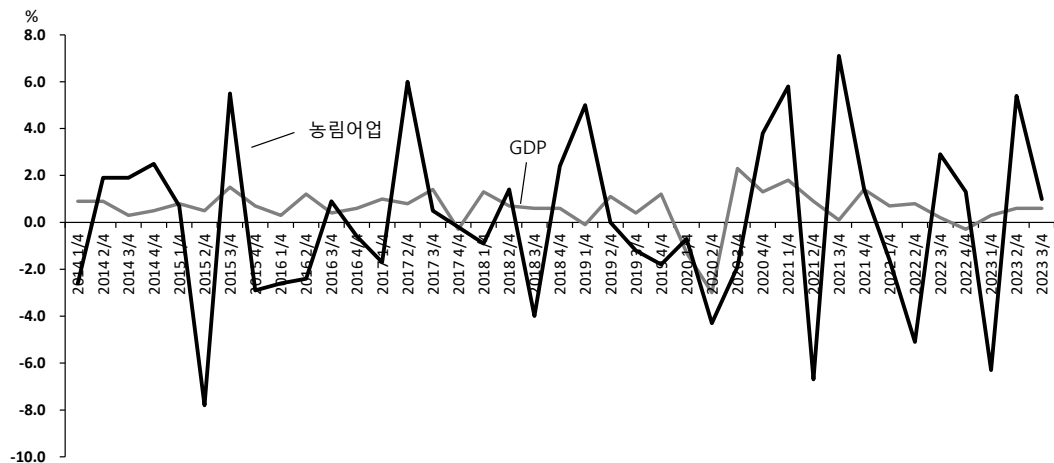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3년 3/4분기 8조 2,4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전기 대비 1.0% 증가함.
 -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00조 2,0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전기 대비 0.6%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1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이석일 전문위원(dltjrdlf2@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3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3으로 전기 대비 5.5% 상승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20=100)

구 분	가중치	2021	2022	2022		2023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0.6	107.7	110.5	112.6	106.4	112.3	-0.3	5.5
곡물	200.1	107.9	93.5	95.5	88.4	99.9	100.4	13.6	0.5
-미곡	146.0	108.1	90.3	87.2	82.7	87.0	95.7	15.7	10.0
-맥류	8.7	89.6	90.1	88.7	90.8	90.7	89.9	-1.0	-0.9
-두류/잡곡	27.5	114.5	102.0	96.6	103.5	112.9	122.0	17.9	8.1
-서류	17.9	106.2	110.8	161.4	115.3	190.2	118.0	2.3	-38.0
청과물	314.0	105.3	108.4	112.0	125.0	112.2	130.9	4.7	16.7
-채소	196.1	106.8	113.4	112.2	133.5	107.4	126.0	-5.6	17.3
-과수	117.9	102.8	99.6	111.8	110.1	120.7	139.3	26.5	15.4
축산물	378.3	115.0	109.5	113.5	110.2	102.7	101.3	-8.1	-1.4
-가축	240.7	110.6	103.7	108.4	105.1	91.9	90.5	-13.9	-1.5
-기타	137.6	123.3	120.4	123.1	119.9	123.1	121.6	1.4	-1.2
기타농산물	107.6	116.3	125.1	122.5	126.4	114.0	116.2	-8.1	1.9
-특용작물	64.7	115.4	117.3	119.1	123.9	107.9	115.0	-7.2	6.6
-화훼	39.3	120.0	143.9	131.5	134.0	126.9	118.3	-11.7	-6.8
-부산물	3.6	98.0	110.5	106.8	106.8	121.5	121.5	13.8	0.0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4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전기 대비 0.5% 상승함.
 - 잡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6% 하락하였지만 멥쌀은 18.5% 상승하여 미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7% 상승함.
 - 맥류의 경우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하였으며, 특히 보리쌀(정곡)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4.7% 하락함.
 - 콩과 검정콩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31.1% 하락하였지만 옥수수, 팥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18.9%, 46.5% 상승하여, 두류/잡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9% 상승함.
 - 감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9% 하락하였지만 고구마는 59.8% 상승하여, 서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엽채류와 근채류,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6% 하락한 126.0임.
 - 양배추, 시금치, 깻잎, 브로콜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10.4%, 1.2%, 15.7% 상승하였지만 배추, 상추, 미나리, 부추는 각각 33.3%, 2.4%, 5.9%, 14.2% 하락하여,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8% 하락함.
 - 당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9% 상승하였지만 무는 32.9% 하락하여,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하락함.
 - 건고추, 생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7.0% 상승하였지만 마늘, 양파, 파는 각각 27.1%, 8.6%, 3.7% 하락하여,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 하락함.
 - 오이, 호박, 가지, 파프리카, 풋고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6%, 27.4%, 20.6%, 14.9%, 30.7% 하락하였지만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일반, 방울)는 각각 17.1%, 17.5%, 8.7%, 3.1%, 41.9%, 20.9% 상승하여,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9.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전기 대비 15.4% 상승함.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블루베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3%, 8.0%, 38.7%, 8.2%, 37.9%, 10.9% 상승함.
 - 반면, 감귤, 단감, 매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4.7%, 0.2%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전기 대비 1.4% 하락함.
 - 육계와 오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9%, 15.8% 상승하였지만 한우(암, 수), 육우, 한우송아지(암, 수), 육우송아지, 성돈, 자돈, 젓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16.8%, 34.2%, 11.9%, 3.6%, 3.7%, 35.8%, 3.0%, 9.4%, 5.1% 하락하여, 가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9% 하락함.
 - 계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하였지만 우유 농가판매가격지수가 5.2% 상승하여, 기타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3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였지만,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와 비료비, 사료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하락한 140.9임.
 - 농약비, 영농자재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 1.5% 상승하였으나, 종자종묘, 비료비, 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1%, 23.7%, 1.9% 하락함.

- 노무비 구입가격지수는 13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였지만, 경비,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영농광열비와 판매자재비, 가축구입비의 영향으로 인해 각각 10.5%, 0.3% 하락한 125.7, 99.5로 나타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3년 3/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3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20=100)

구 분	가중치	2021	2022	2022		2023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5.0	120.1	120.2	122.7	119.5	120.6	-1.7	0.9
가계용품	484.8	102.5	107.4	107.2	108.5	110.5	111.8	3.0	1.2
재료비	250.6	108.4	145.8	143.7	149.2	140.8	140.9	-5.6	0.1
-종자종묘	27.5	101.6	109.1	110.3	110.3	105.4	109.1	-1.1	3.5
-비료비	39.0	107.5	249.6	251.1	248.1	189.2	189.2	-23.7	0.0
-농약비	29.3	101.6	109.5	109.5	109.5	122.5	123.1	12.4	0.5
-사료비	136.0	111.2	135.3	131.0	141.1	139.1	138.4	-1.9	-0.5
-영농자재비	18.7	110.1	141.8	140.0	143.8	145.9	145.9	1.5	0.0
노무비	45.0	108.9	122.9	122.4	127.1	132.4	133.0	4.6	0.5
경비	129.0	107.3	133.1	137.0	140.4	124.4	125.7	-10.5	1.0
-영농광열비	32.6	127.1	201.7	220.1	219.7	167.8	174.4	-20.6	3.9
-임차료	40.5	101.8	103.8	103.5	104.9	105.9	106.5	1.5	0.6
-농작업위탁비	42.5	95.3	95.2	95.2	95.2	95.2	95.2	0.0	0.0
-판매자재비	13.3	98.4	121.9	108.3	135.5	129.9	122.2	-9.8	-5.9
자산구입비	90.6	103.4	99.1	100.8	99.8	97.6	99.5	-0.3	1.9
-기계구입	58.9	99.5	99.6	98.9	99.4	100.3	100.3	0.9	0.0
-가축구입비	31.7	113.2	98.0	105.6	100.6	90.9	97.7	-2.9	7.5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3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3.1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전기 대비 4.6%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0.3% 하락하였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7% 하락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2		2023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0.5	112.6	106.4	112.3	-0.3	5.5
농가구입가격(B)	120.2	122.7	119.5	120.6	-1.7	0.9
농업투입재가격(C)	142.1	146.1	136.6	137.3	-6.1	0.5
농가교역조건(A/B×100)	91.9	91.8	89.0	93.1	1.5	4.6
농가경영조건(A/C×100)	77.8	77.1	77.9	81.8	6.2	5.0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3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6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0.9% 증가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50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전기 대비 0.6%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97만 7천 명, 여성 수는 66만 3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95만 1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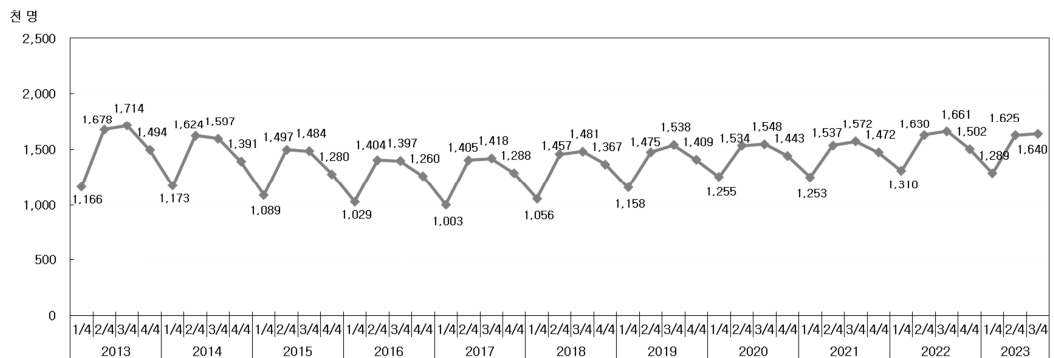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22	2023		증감률(%)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계절조정)	28,425 (28,168)	28,693 (28,465)	28,687 (28,429)	0.9 0.9	0.0 -0.1
	농림어업 (계절조정)	1,661 (1,521)	1,625 (1,512)	1,640 (1,503)	-1.3 -1.2	0.9 -0.6
	남성	994	969	977	-1.7	0.8
	여성	667	655	663	-0.6	1.2
	농가	1,893	1,956	1,951	3.1	-0.3
	농가남성	1,065	1,098	1,096	2.9	-0.2
	농가여성	828	858	855	3.3	-0.3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
 2020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 변경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3년 3/4분기는 전기 대비 증가하여 계절성을 보이거나 2/4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2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함.
 - 곡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하였지만, 과실류, 채소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6.6%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하였으며, 특히 포유육류와 낙농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5.7% 증가함.
 - 임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하였지만, 전기 대비 7.8% 감소함.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2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과실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였지만, 곡류, 채소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12.5%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의 경우 가금육류,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 17.0% 감소하였지만, 포유육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전기 대비 3.4% 감소함.
- 2023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7,61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전월 대비 2.8%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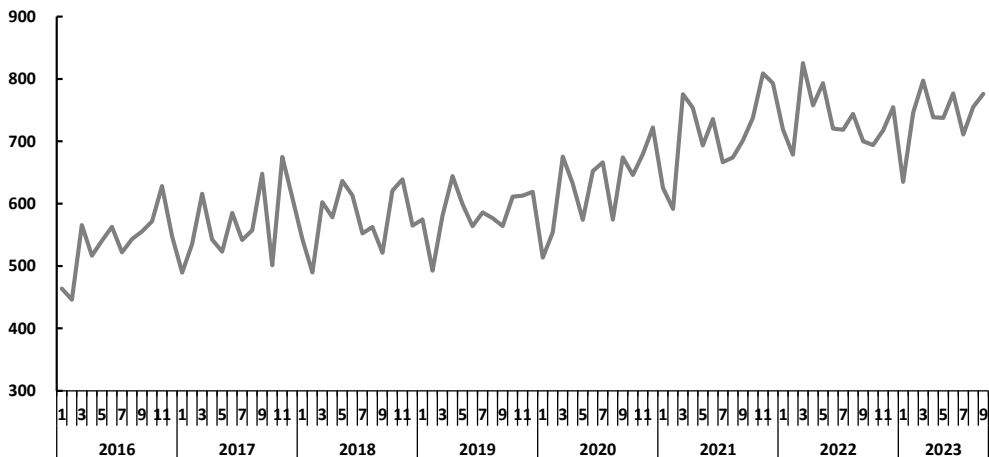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63	2,271	958	2,163	1,076	2,253	1,021	2,242	6.5	3.7
농산물		850	1,983	782	1,874	845	1,998	786	1,983	0.5	5.8
- 곡류		67	22	10	10	58	25	8	11	-18.5	5.9
- 과실류		27	67	32	97	30	67	34	95	3.7	-2.4
- 채소류		37	114	24	82	32	111	25	92	6.6	12.5
축산물		52	153	54	155	46	156	64	157	18.4	1.2
- 포유육류		2	8	2	9	2	9	2	11	1.9	19.5
- 가금육류		15	24	20	31	11	18	14	24	-32.2	-24.7
- 낙농품		8	42	8	39	9	30	8	32	5.7	-17.0
임산물		161	136	123	133	185	99	171	103	39.4	-23.2
수 산 물		273	914	220	735	176	779	162	677	-26.2	-7.9
전 체		1,336	3,185	1,178	2,898	1,252	3,032	1,183	2,919	0.4	0.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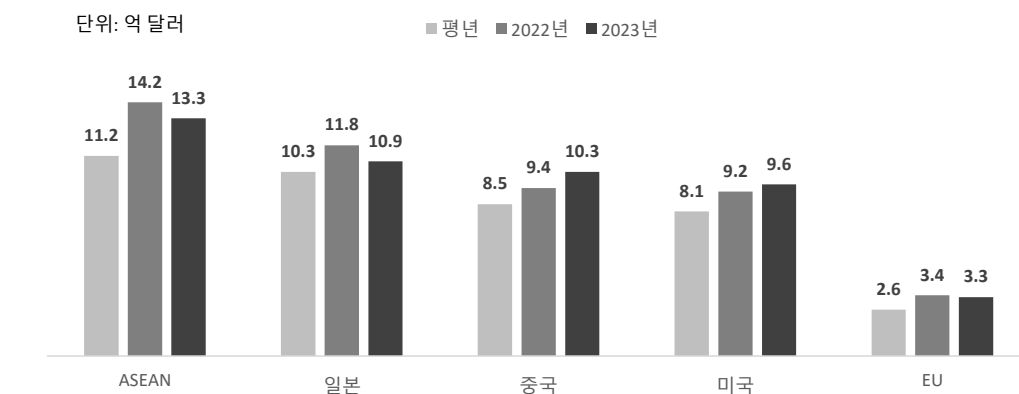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3년 1~9월 농축산물 수출액은 6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5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함.
 - 주요 수출대상국 상위 5개국은 ASEAN, 일본, 중국, 미국, EU이며, 5개국의 1~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47억 4천만 달러임.
-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05.9로 전기 대비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제물류(103.2), 자금 사정(107.2)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²⁾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24.3%),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6.5%)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3년 3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3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3.06.22)

4.2. 수입 동향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299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입량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13.1%, 3.8% 감소함.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06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7%, 24.6% 감소함.
 - 밀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옥수수과 보리 수입량이 각각 20.0%, 19.9% 감소하여 곡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함.
 - 포유육류와 가금육류, 낙농품 수입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9%, 12.6%, 13.8%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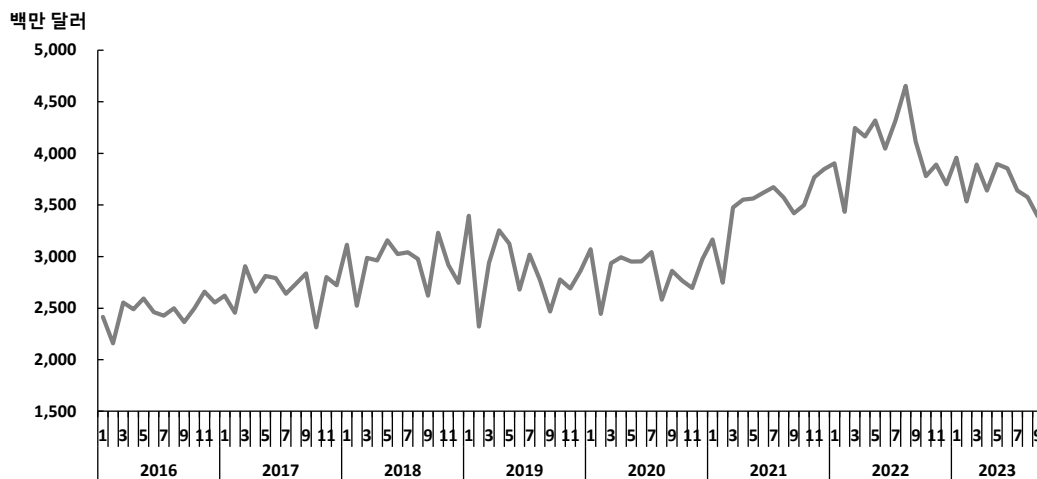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2/4		3/4		2/4		3/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4,284	12,530	14,188	13,082	13,469	11,392	12,999	10,608	-8.4	-18.9
농 산 물	9,379	7,685	9,542	7,876	9,122	7,177	8,582	6,555	-10.1	-16.8
- 곡류	4,168	1,607	4,280	1,839	4,094	1,521	3,747	1,305	-12.5	-29.0
- 과실류	325	667	255	462	328	650	269	490	5.7	6.2
- 채소류	290	300	334	319	316	300	330	320	-1.2	0.5
축 산 물	501	2,753	559	3,228	506	2,566	486	2,560	-13.1	-20.7
- 포유육류	276	1,748	318	2,032	289	1,582	259	1,505	-18.4	-25.9
- 가금육류	55	148	78	239	69	175	80	209	2.9	-12.6
- 낙농품	105	433	106	455	97	413	96	392	-9.7	-13.8
임 산 물	4,404	2,092	4,087	1,979	3,840	1,648	3,932	1,493	-3.8	-24.6
수 산 물	1,425	1,791	1,668	1,662	1,518	1,668	1,545	1,352	-7.4	-18.7
전 체	15,708	14,322	15,857	14,745	14,986	13,061	14,544	11,960	-8.3	-18.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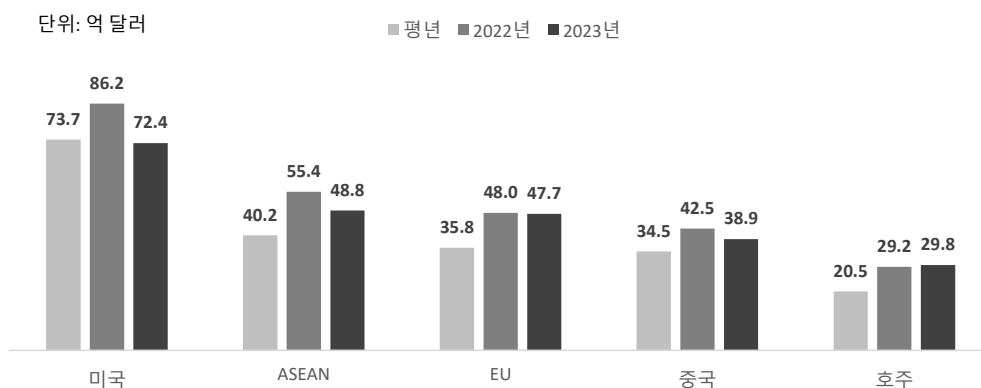
- 2023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3억 9,17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5%, 전월 대비 5.1%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3년 2분기」.

- 2023년 1~9월 농축산물 수입액은 33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였고,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8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함.
- 주요 수입대상국 상위 5개국은 미국, ASEAN, EU, 중국, 호주이며, 5개국의 1~9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237억 6천만 달러임.

4.3. 순수입 동향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197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779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42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함.
- 2023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한 83억 6,6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8%, 21.8%,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2년 3/4분기		2023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230	10,920	11,979	8,366	-9.5	-23.4
농 산 물	8,761	6,002	7,796	4,573	-11.0	-23.8
축 산 물	505	3,072	422	2,403	-16.5	-21.8
임 산 물	3,965	1,845	3,761	1,390	-5.1	-24.7
수 산 물	1,449	927	1,383	675	-4.6	-27.2
전 체	14,679	11,847	13,361	9,041	-9.0	-23.7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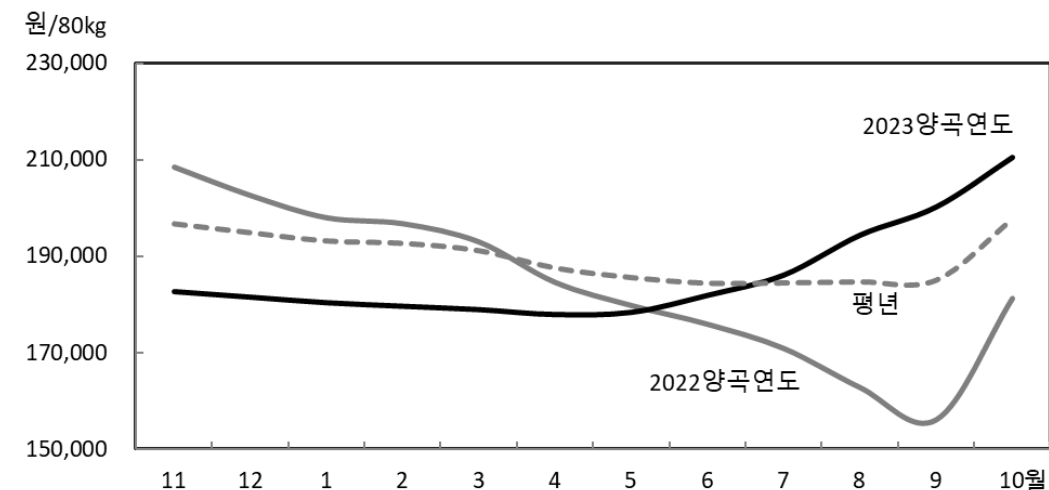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쌀 가격은 비추정 방식이며,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8~2022 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 평균을 의미
자료: 통계청

- 2023년 3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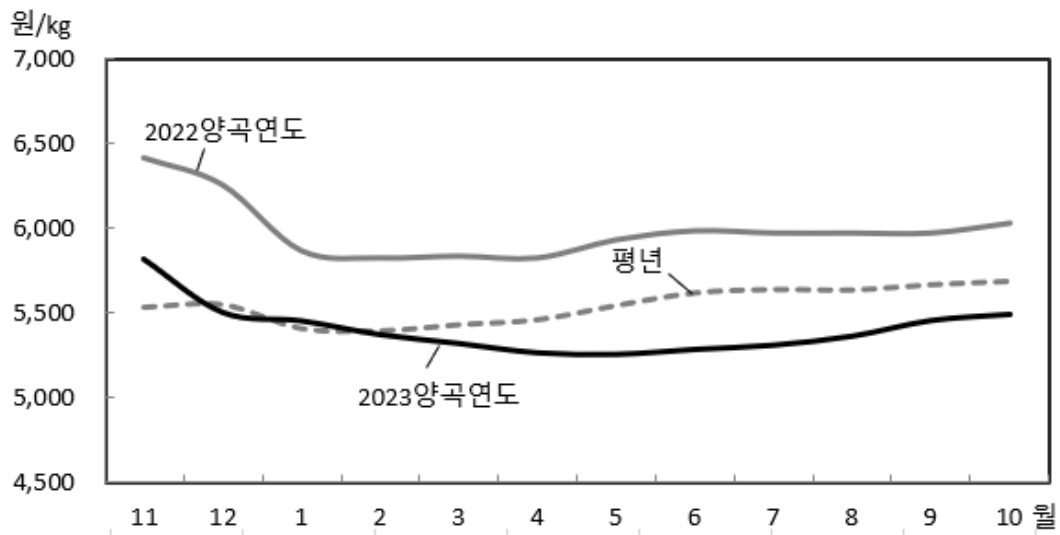
- 3분기 산지 쌀 가격은 19만 3,585원/80kg(48,396원/20kg)으로 2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18.6% 상승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최선우 전문연구원(opendoyon@krei.re.kr), 이미숙 전문연구원(lms1214@krei.re.kr), 김창수 전문연구원(kcs87@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김지훈(jhkim4209@krei.re.kr), 강윤정(kangyj@krei.re.kr), 임수현(imsh7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산지 재고 부족에 대한 산지유통업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료곡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산지 쌀 가격은 21만 556원/80kg으로 3분기 및 전년 대비 각각 8.8%, 16.1% 상승
 - 이는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과잉물량도 예년 대비 축소되었기 때문
 - 4분기 산지 쌀 가격은 생산량 감소 및 정부의 수급 대책 등으로 3분기 및 전년보다 높을 전망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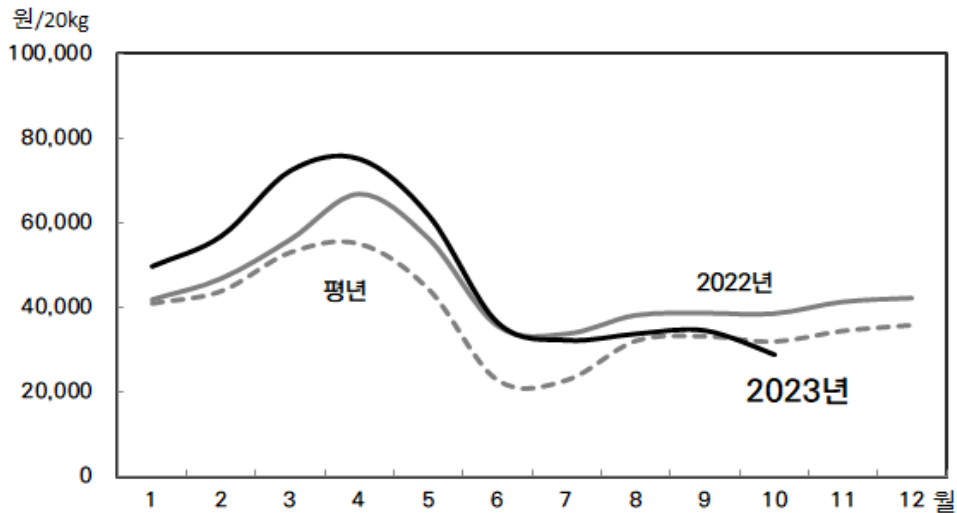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 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376원/(백태 상품 kg)으로 2분기 대비 2.0%

- 상승, 전년 동기 대비 10.0% 하락
- 이는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많지만 재고 보관 비용 등이 반영되어 전 분기보다 가격 상승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5,491원/(백태 상품 kg)으로 2분기 대비 4.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9.0% 하락
 - 이는 2023년산 작황 부진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어 재고가 부족한 업체들이 매입을 전년보다 늘렸기 때문
 - 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수확기 시장공급량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3분기 대비 높을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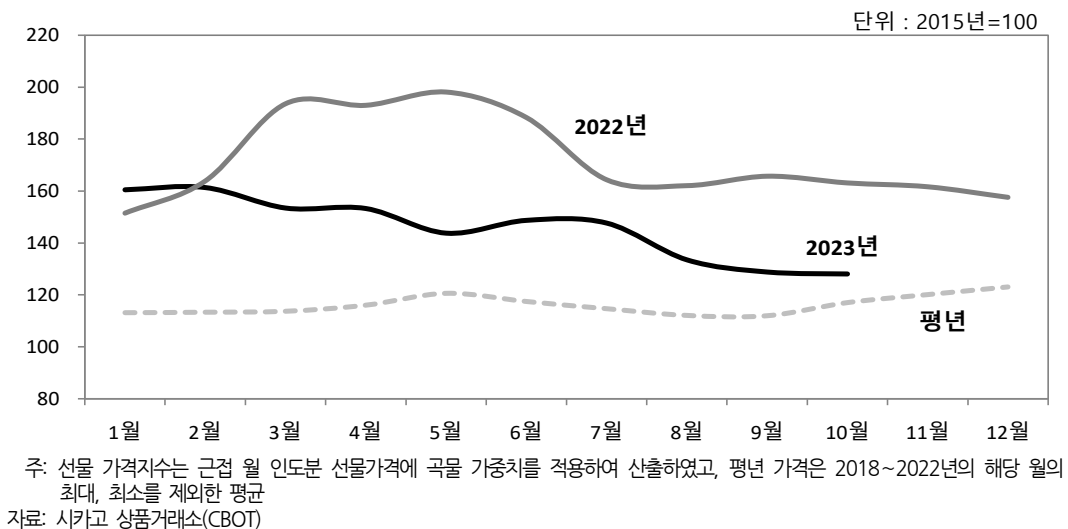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33,698원/(수미 상품 20kg)으로 2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7%, 8.9% 하락
 - 이는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로 시장 출하가 늘었기 때문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감자 도매가격은 29,033원/(수미 상품 20kg)으로 3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8%, 28.9% 하락
 -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은 데다가 품위 낮은 이모작 고랭지감자 출하도 늘었기 때문
 - 4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에도 저장감자(봄·고랭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지만, 저장 비용 등이 반영되어 3분기보다 높은 전망
 - * 가을감자 생산량은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16% 적을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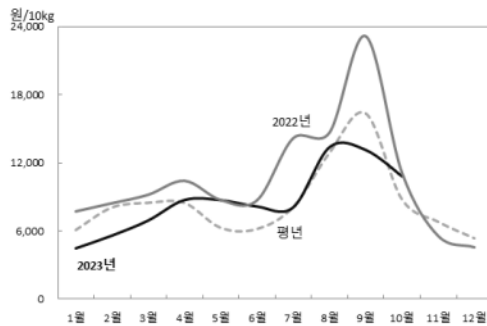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2023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8.0% 하락한 136.7임.
 - 미국 옥수수과 콩의 원활한 수확 진행, 흑해·남미산 곡물과 수출 경쟁 심화, 달러화 강세 등으로 가격 하락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4.4% 하락한 130.7로 전망됨.
 - 주요 생산국의 생육과 수확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가격 하락 전망되나, 엘니뇨 발생 영향에 따른 일부 주산지 생산량 감소 우려 등으로 가격 하락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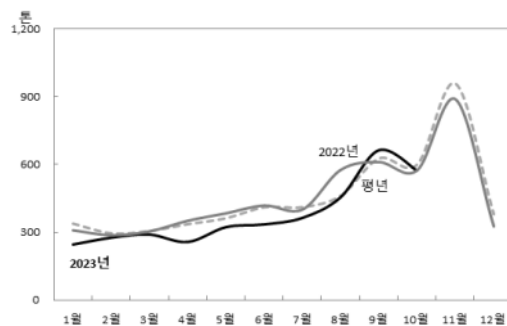
2. 엽근채소²⁾

2.1.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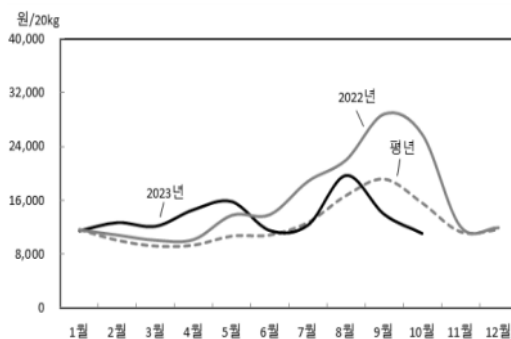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11,560원/1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3.3%, 5.6% 하락)
 -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병해 발생 적어 여름배추 생산량 증가
 - * 2023년 여름배추 생산량 36만 6천 톤 (전년 대비 3.2% 증가, 평년 대비 5.4% 감소)
 - * 2023년 가격: (7월) 8,100원/10kg, (8월) 13,410원, (9월) 13,160원
 - * 3분기 가격: (2023년) 11,560원/10kg, (2022년) 17,310원, (평년) 12,240원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가을배추 생산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6%, 2.4% 감소
 - * 재배면적 13,832ha (전년 대비 0.9% 감소, 평년 대비 2.4% 증가)
 - * 단수 9,031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8%, 4.7% 감소)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ygpark@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안나영(anna@krei.re.kr), 방지원 연구원(jiwon_b@krei.re.kr)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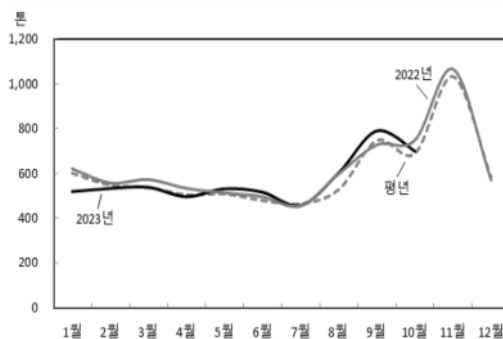
- * 금년 정식 및 초기생육기(8~9월) 고온자른 비로 병해 발생하여 작황이 매우 양호하였던 전년 대비 단수 감소
- * 8월 정식분(10월 출하) 작황은 9월 정식분(11월 출하)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
- * 출하시기 빠른 강원, 충북, 경북지역 작황은 충남, 전남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
- 4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4%, 2.7% 감소
- 4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7,090원/10kg) 및 평년(7,120원) 대비 상승
- 2023년산 겨울배추 생산 전망
 - 2023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28만 3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6%, 3.2% 감소)
 - * 재배면적 3,59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 6.8% 감소)
 - * 단수 7,890kg/10a (전년 대비 9.5% 감소, 평년 대비 3.8% 증가)
 - * 금년 정식기(9월) 고온 및 많은 비로 초기 작황 다소 부진하여 전년 대비 단수 감소하나, 현재 초기 생육 단계로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 회복 가능

2.2.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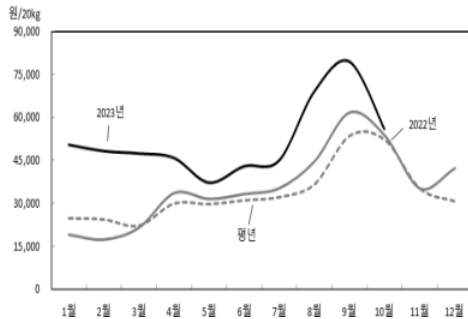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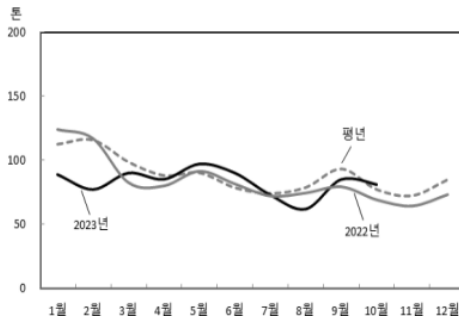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5,33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4.0%, 5.3% 하락)
 - 여름무 생산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 2023년 여름무 생산량 25만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6%, 0.6% 증가)
 - * 2023년 가격: (7월) 12,310원/20kg, (8월) 19,740원, (9월) 13,930원
 - * 3분기 가격: (2023년) 15,330원/20kg, (2022년) 23,240원, (평년) 16,190원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가을일반무 생산량 39만 1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 2.4% 증가)
 - * 재배면적 5,11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 5.6% 증가)
 - * 단수 7,644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 3.0% 감소)
 - * 주산지 발아기 고온으로 결주 증가, 생육 초기 잦은 비로 열근, 가랑이무 등 생리장해 발생하여 작황 다소 부진
 - 4분기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5%, 2.7% 증가
 - 4분기 무 도매가격 전년(16,620원/20kg) 및 평년(12,790원) 대비 하락
- 2023년산 겨울무 생산 전망
 - 2023년산 겨울무 생산량 35만 6천 톤(전년 대비 16.7% 증가, 평년 대비 9.0% 감소)
 - * 재배(출하)면적 5,435ha (전년 대비 15.0%, 평년 대비 9.9% 감소)
 - * 2022년산 겨울무 초기 파종면적 5,611ha이나, 한파 피해로 시장격리 진행되면서 재배(출하)면적 4,724ha로 변동
 - * 단수 6,546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 0.9% 증가)
 - * 8월 파종분(11~12월 출하) 생육기 고온으로 고자리파리 등 충해 발생하여 상품성 다소 저하, 9~10월 파종분(내년 1월~4월 출하) 최근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 양호

2.3.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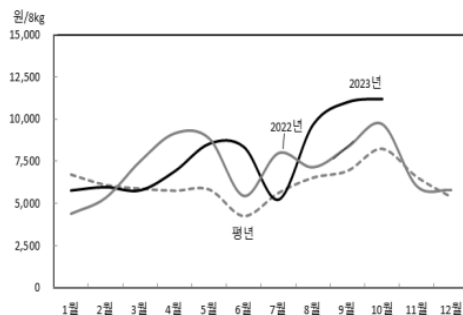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64,13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5.4%, 57.5% 상승)
 - 저장봄당근 감모율 증가하였고, 여름당근 작황 부진하여 가격 상승
 - * 저장봄당근 감모율 30% 이상 발생(평년 감모율 10% 내외)
 - * 여름당근 생산량 6천 3백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7%, 14.6% 감소)
 - * 2023년 가격: (7월) 44,940원/20kg, (8월) 69,050원, (9월) 78,410원
 - * 3분기 가격: (2023년) 64,130원/20kg, (2022년) 47,360원, (평년) 40,720원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가을당근 생산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4%, 12.9% 감소
 - * 재배면적 16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16.1% 감소)
 - * 단수 3,653kg/10a (전년 대비 3.2% 감소, 평년 대비 3.8% 증가)
 - * 영남지역(구미·김천) 생육기 고온 및 잦은 비로 작황 부진
 - * 검은잎마름병 등 병해 발생으로 인한 작황 부진 가능성
 - 4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8.1%, 3.5% 증가
 - 4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43,820원/20kg)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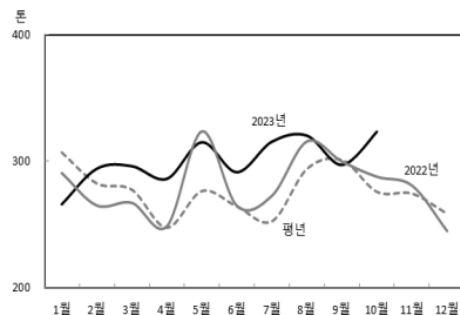
- 2023년산 겨울당근 생산 전망
 - 2023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5만 4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5.8%, 20.0% 증가)
 - * 재배면적 1,431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8.7%, 19.3% 증가)
 - * 단수 3,797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1%, 0.6% 증가)
 - * 2022년산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태풍(힌남노) 피해로 초기 파종면적 1,221ha에서 재배면적 848ha로 변동

2.4.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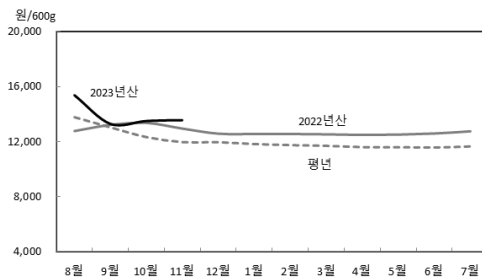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 8,66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7%, 36.5% 상승)
 -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
 - * 2023년 가격: (7월) 5,250원/8kg, (8월) 9,700원, (9월) 11,030원
 - * 3분기 가격: (2023년) 8,660원/8kg, (2022년) 7,820원, (평년) 6,340원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가을양배추 생산량 전년 대비 4.1% 감소
 - * 재배면적 전년 대비 0.9% 증가, 단수는 5.0% 감소
 - * 조생종 가을양배추 정식기 고온·잦은 비로 전년 대비 작황 부진, 중생종 가을양배추 작황은 양호
 - 4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대비 0.9% 감소
 - 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7,180원/8kg) 대비 상승
- 2023년 겨울양배추 생산 전망
 - 2023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전년 대비 1.9% 증가
 - * 겨울양배추 정식기 및 생육기 기상 호조로 작황 전년 대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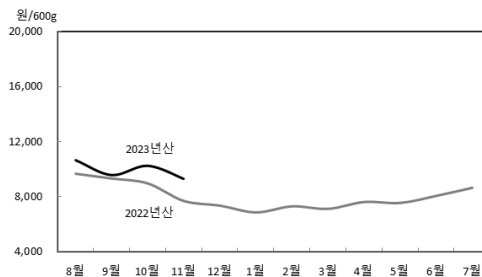
3. 양념채소³⁾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도매가격 동향(중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7년 8월~2022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이고, 산지가격은 평균 단가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8~9월)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은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4%, 7.0% 상승
-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6.0% 상승
 - * 건고추 도매가격(원/600g): (금년) 14,326 (전년) 12,973 (평년) 13,384
 - * 월별 도매가격(원/600g): (7월) 12,724 (8월) 15,364 (9월) 13,287

- 2023년산 건고추 생산량

- 2023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9%, 12.1% 감소한 27,129ha(통계청)
- 단수는 가뭄으로 작황 부진하였던 전년 대비 4.8% 증가, 여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평년 대비 3.8% 감소한 221kg/10a 전망
- 생산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6%, 15.4% 감소한 6만 톤 내외 전망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2023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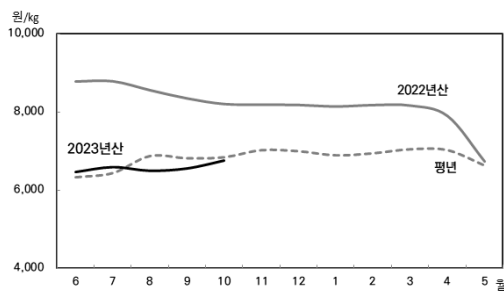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27,129	221	60,018
2022	29,770	211	62,916
평년	30,853	230	70,954
전년 대비	-8.9	4.8	-4.6
평년 대비	-12.1	-3.8	-15.4

주: 2023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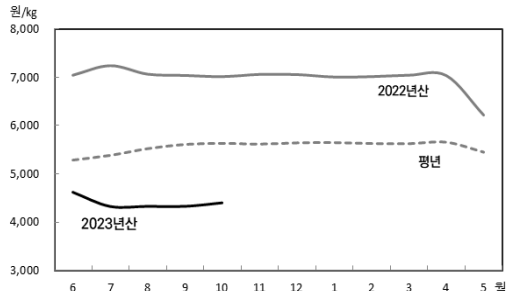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은 8월부터 기상이 양호하여 3분기 대비 하락한 13,560원
 - 4분기 건고추 가격은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수준 유지할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3년산 생산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4%, 2.2% 하락
 -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6,554원/kg, (전년) 8,556원/kg, (평년) 6,702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6,597원/kg, (8월) 6,502원/kg, (9월) 6,562원/kg
- 2023년산 마늘 재고 동향
 -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9만 9천 톤 내외 추정
 - 누적 출고량은 전년 대비 1.1%, 평년 대비 20.3% 감소한 1만 5천 톤 내외
 - * 저품위 저장마늘 출하로 10월 출고량 증가했으나, 금년 낮은 가격과 소비 부진 영향으로 누적 출고량 전년 대비 감소
 - 10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23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7%, 평년 동기 대비 4.6% 많은 8만 톤 내외 추정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10월 말 기준)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3	99,127	15,480	79,776
2022	90,781	15,654	72,059
평년	99,444	19,418	76,265
전년 대비	9.2	-1.1	10.7
평년 대비	-0.3	-20.3	4.6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3년산 4.6%, 2022년산 4.1%, 평년 4.7%)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은 2018~2022년산 입고량 추정치(농업관측센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 저장가공업체 및 표본농가 조사치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깐마늘 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으나, 전월(6,562원)보다 상승한 6,766원/kg(상품)
 - * 10월 도매가격: (금년) 6,766원/kg, (전년) 8,198원, (평년) 6,835원

- 4분기 깐마늘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8,185원) 대비 낮으나, 전 분기(6,554원) 대비 상승 전망

- 202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 202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3.2%, 평년 대비 3.0% 감소한 23,852ha 추정

* 품종별로 한지형은 전년 대비 2.3%, 난지형은 전년 대비 3.3% 감소
(난지형 중 대서종 전년 대비 1.9% 감소, 남도종 5.9% 감소)

202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추정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4		4,475	19,377	23,852
2023		4,581	20,048	24,629
평년		4,823	19,760	24,583
증감률	전년 대비	-2.3	-3.3	-3.2
	평년 대비	-7.2	-1.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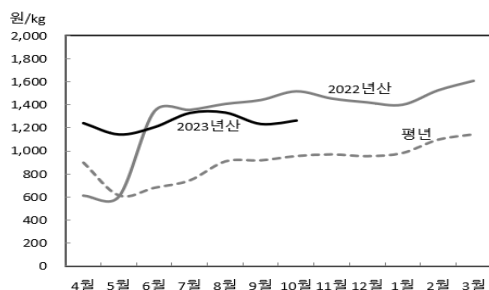
주 1.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9~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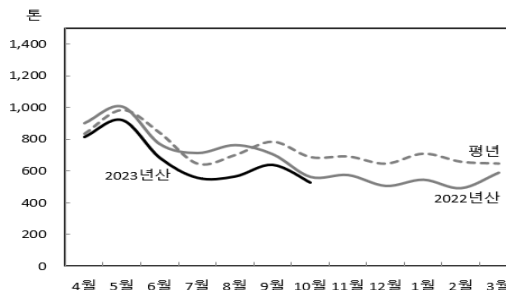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8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및 저장량 증가로 전년 대비 7.4% 낮으나, 평년 대비 51.7% 높은 상품 kg당 1,298원
 - * 양파 도매가격: (금년) 1,298원/kg, (전년) 1,402원/kg, (평년) 855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1,328원/kg, (8월) 1,331원/kg, (9월) 1,234원/kg
- 2023년산 양파 재고 동향
 - 2023년산 양파 입고량은 63만 5천 톤 내외로 전년 대비 3.3% 증가, 평년 대비 7.4% 감소
 - 10월 말 기준 누적출고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 0.2% 감소한 16만 1천 톤 내외로 추정
 - * 정부 수급대책 영향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저장업체 출하조절, 재고소진 지연
 - 부패율을 감안한 10월 말 기준 재고량은 42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5.7% 많으나, 평년보다 9.4% 적은 것으로 추정

2023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10월 말 기준)

단위: 천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3	635	161	425
2022	615	167	402
평년	685	161	469
전년 대비	3.3	-4.1	5.7
평년 대비	-7.4	-0.2	-9.4

주 1. 평년 입고량은 2018~2022년산 입고량 조사치(농업관측센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2. 2022년산, 2023년산 입고량은 국내산 정부 수매물량이 포함된 수치
 3.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3년산 10.3%, 2022년산 10.1%, 평년 10.6%)을 적용한 수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 저장업체 조사치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낮으나, 전월 및 평년보다 높은 1,264원/kg(상품)

- 11월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 및 수입산 지속 출하 등으로 전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 높고 전월과 비슷한 1,250원/kg(상품) 전망
-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23년산 대비 증가
 -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 2.8% 증가한 18,721ha 추정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1.3% 증가, 중만생종은 4.6% 증가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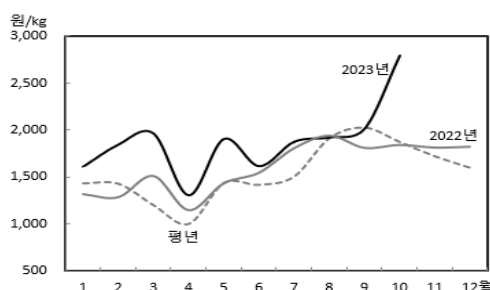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4	2,994	15,727	18,721
2023	2,956	15,030	17,986
평년	2,917	15,290	18,207
전년 대비	1.3	4.6	4.1
평년 대비	2.7	2.9	2.8

주 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종자육묘업체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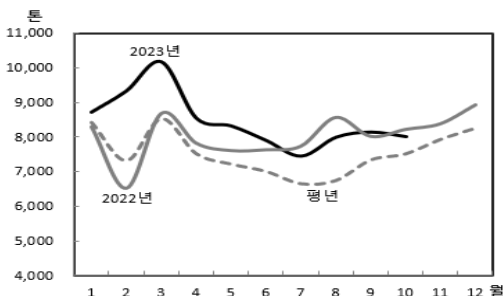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자료는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파 반입량 동향



- 2023년 3분기 동향
 - 대파 3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934원/kg(중품 1,619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7%, 6.4% 상승
 -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 대파 도매가격: (금년) 1,934원/kg, (전년) 1,848원/kg, (평년) 1,817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1,873원/kg → (8월) 1,918원/kg → (9월) 2,011원/kg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고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 감소로 전년(1,837원/kg)보다 높은 2,788원/kg
 -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1.0% 증가
 - 4분기 출하량은 금년 집중호우와 고온 영향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전망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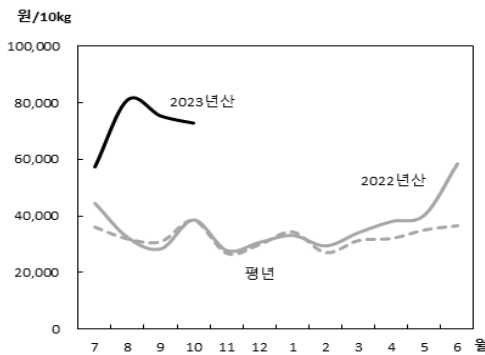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2.7	1.7	-3.4	-5.3	1.0

자료: 전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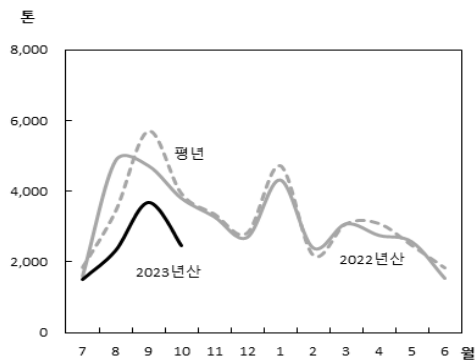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8~22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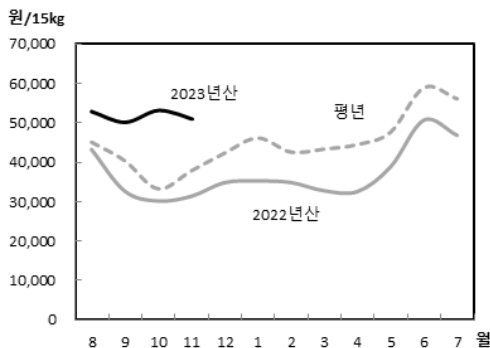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7~8월 쓰가루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80% 상승한 69,300원/10kg이었음.
 - 9월 홍로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와 추석 성수기 수요로 전년 대비 166% 상승한 75,500원/10kg이었음.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89% 상승한 72,900원/10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후지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각각 20%,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이해인(hye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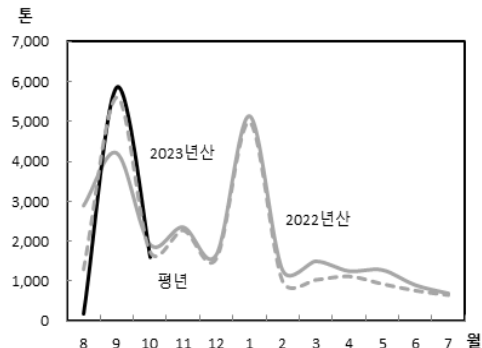
- 2023년산 사과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후지 생산량 감소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저장성 하락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생산량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43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2% 감소하였고, 단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봄철 저온 피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 및 생육기 병해충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여, 상품과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품질도 좋지 않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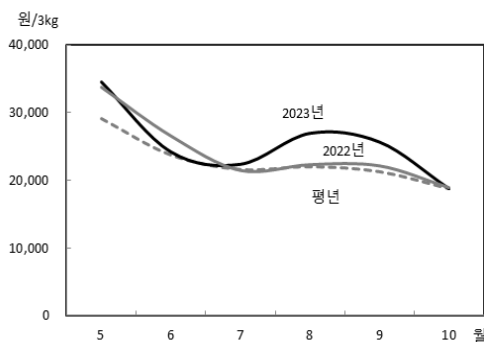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22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13%)로 전년 대비 16% 상승한 50,000원/15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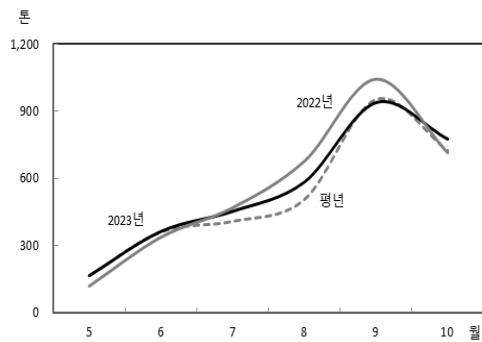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76% 상승한 53,300 원/15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배 출하량은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각각 25%,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산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됨. 저장 출하기 및 설 성수기 가격 상승 기대로 대과 및 상품과 위주의 저장 의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생산량 전망
 - 2023년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20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 단수는 저온 피해로 착과수 및 봉지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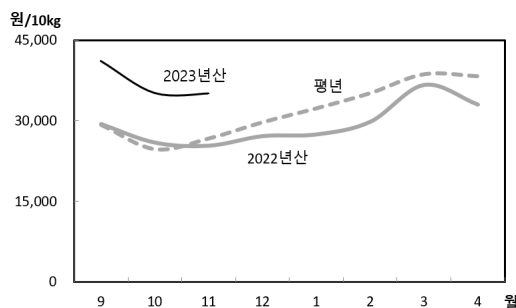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2. 도매가격은 하우스온주(3kg)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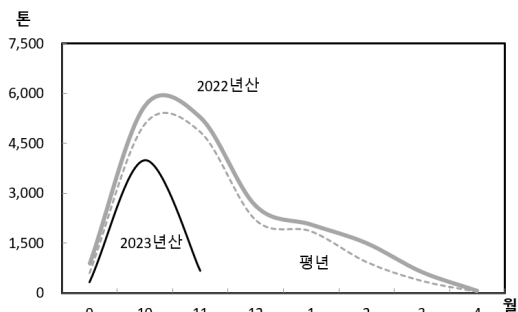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14% 상승한 25,000원/3kg이었음.
 - 7~8월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어 하우스온주 반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대체과일(사과·배·복숭아 등)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등으로 하우스온주 수요가 증가함.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극조생, 유라조생)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 상승한 10,300원/5kg이었음.
 -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감귤 가격 상승과 대체과일 공급 부족으로 노지온주가 조기 출하되며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 출하량은 11월 조기 출하로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43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으나, 면적 비중이 큰 서귀포시의 단수 늘어 노지온주 단수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열과 피해로 인한 착과량 감소로 대과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지역별 단수 증감률: 서귀포시(전년 대비 7% 증가), 제주시(7% 감소)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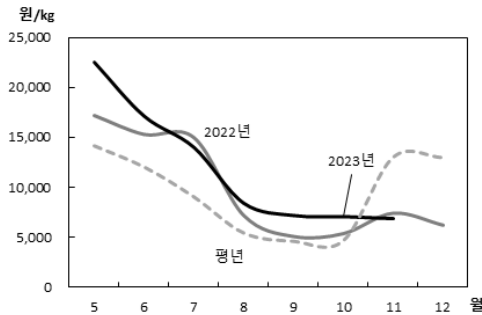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22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2. 도매가격은 9월 서춘, 10~4월 부유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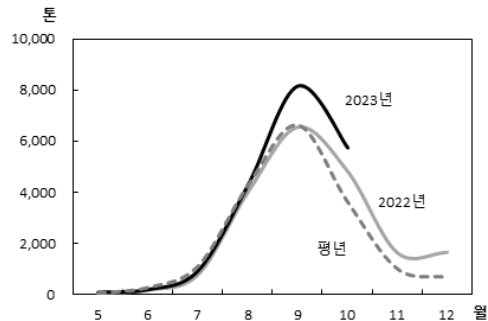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서춘조생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64%)로 전년 대비 40% 상승한 41,100원/10kg이었음.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36% 상승한 35,100 원/10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각각 24%,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1월에 출하될 단감 품질은 수확 전까지 잦은 강우로 당도 저하와 과 비대가 부진함. 또한, 가을 장마(9월)로 얼룩과, 오염과 발생이 증가하여 외관이 좋지 않음.
- 2023년 생산량 추정
 - 2023년 단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7만 2천 톤 내외로 추정됨. 저온피해로 착과수가 감소하였고 병(탄저병) 발생으로 작황이 매우 부진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8~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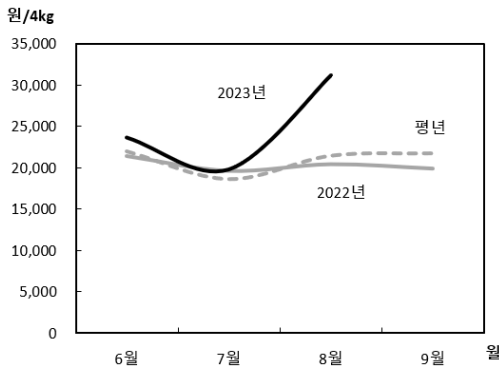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kg으로 환산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3년 3분기 동향
 - 3분기 거봉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5% 상승한 22,700원/2kg, 캠벨얼리는 전년 대비 18% 상승한 27,300원/3kg이었음.
 - 반면, 샤인머스켓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7% 하락한 24,300원/2kg이었음.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샤인머스켓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44%)로 전년 대비 10% 하락한 10,900원/2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샤인머스켓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8%,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 증가로 저장 출하기 가격 기대 수준이 낮아 저장 의향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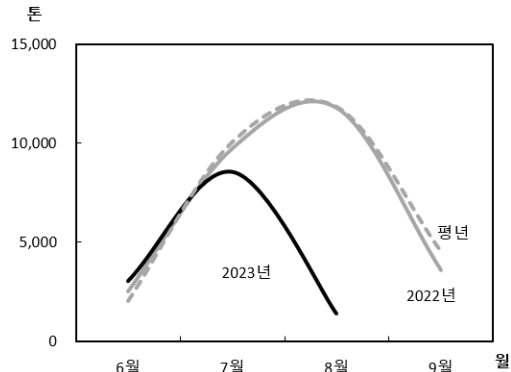
- 2023년 생산량 추정
 - 포도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8만 6천 톤 내외로 추정됨.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생육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단수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샤인머스켓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캠벨얼리·거봉·MBA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8~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
 3. 2021년 이전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가격은 4.5kg을 4kg으로 환산한 가격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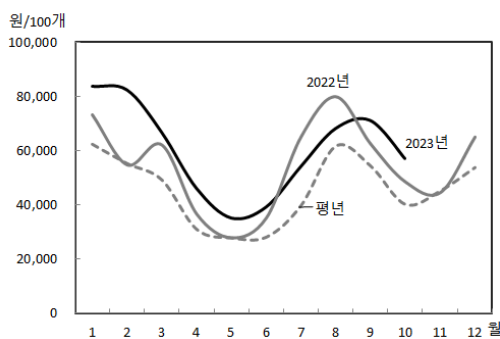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유모계: 천중도백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46%)로 전년 대비 63% 상승한 33,300원/4kg이었음. 엘버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1%)로 전년 대비 66% 상승한 33,100원/4kg이었음.

- 천도계: 레드골드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30%)로 전년 대비 54% 상승한 45,000원/10kg이었음. 환타지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22%)로 전년 대비 74% 상승한 64,000원/10kg이었음.
- 2023년 생산량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6만 3천 톤으로 추정됨. 개화기 저온(착과수 감소) 및 집중호우(낙과 발생 증가), 병 발생 늘어 단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품종별로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15%,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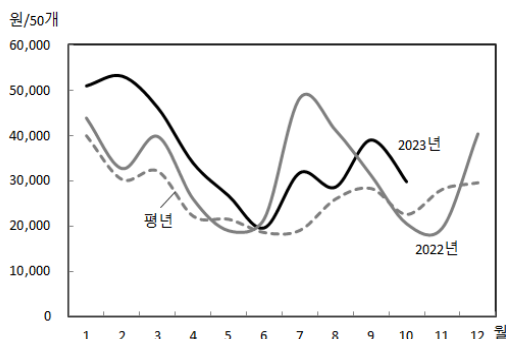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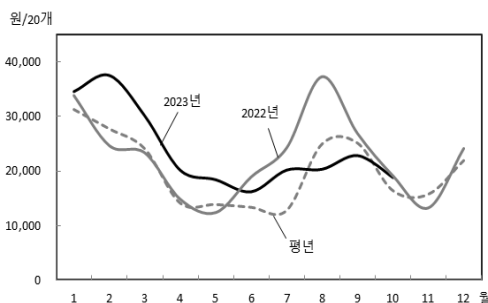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54,100원/100개, 8월 68,200원, 9월에는 71,2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64,500원/100개로 전년 동기(69,000원) 대비 7% 하락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31,700원/50개, 8월 28,500원, 9월은 38,9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33,000원/50개로 전년 동기 (40,200원)보다 18% 하락하였음.
 - 3분기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반입량은 여름 작형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기상 여건 양호 및 병·바이러스 피해가 적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0% 증가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김환희(wh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김주영(kimjyyang3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48,300원) 대비 18% 높은 57,100원/100개이었음.
 - 11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12월 출하면적은 겨울 작형 주산지(경북 상주, 전남 고흥 등)에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면적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20,400원)보다 46% 높은 29,700원/50개이었음.
 - 11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기상 여건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며, 12월 출하면적은 주산지인 호남지역에서 품종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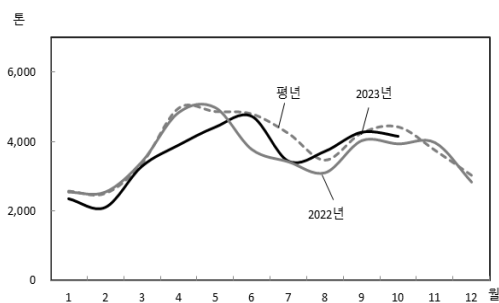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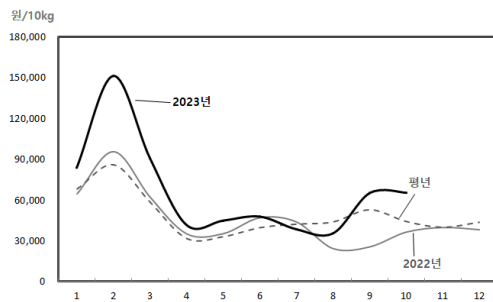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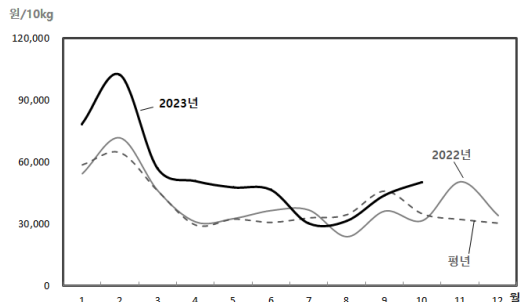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0,200원/20개, 8월 20,300원, 9월 23,900원이었음. 3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29,500원) 대비 28% 하락한 21,200원/20개이었음.
 - 3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음. 이는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늘었으며, 작황이 부진하였던 전년과 달리 병·바이러스 피해가 감소하여 생육이 양호하였기 때문임.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19,200원) 대비 2% 하락한 18,900원/20개이었음. 10월 상·중순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하순은 경기지역 출하가 마무리되고 충청지역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줄어 상승하였음.
 -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은 충청지역 바이러스 피해 증가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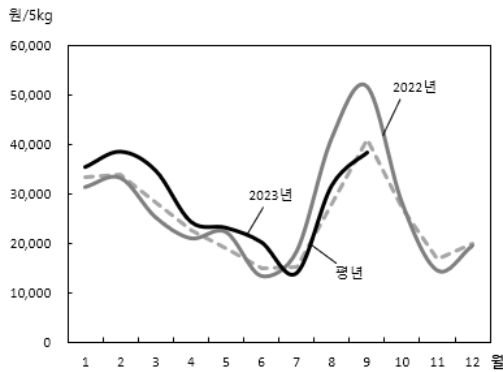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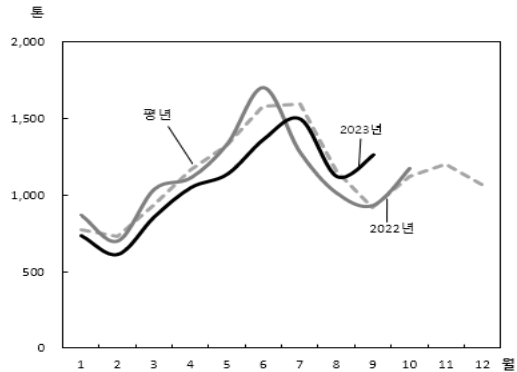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38,600원/10kg, 8월 35,600원, 9월 65,3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62,600원) 대비 26% 낮은 46,500원/10kg이었음.
 - 3분기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여름 작형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은 7월 30,300원/10kg, 8월 31,400원, 9월 43,8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50,700원) 대비 31% 낮은 35,200원/10kg이었음.
 -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오이맛고추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어났고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24% 높은 65,500원/10kg이었음. 10월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44% 높은 50,300원/10kg이었음.
 -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겨울 작형 주산지인 영·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생육 초기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11월 청양계꽃고추·오이맛고추 가격은 주산지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예측되나, 행사자제 분위기로 소비가 위축되었던 전년과는 달리 수요가 회복되어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됨.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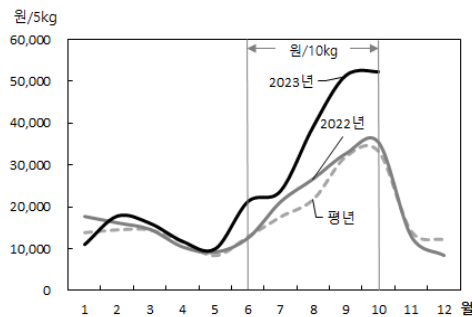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7월 14,000원/5kg, 8월 31,800원, 9월 38,500원이었음. 3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37,100원) 대비 24% 하락한 28,100원/5kg이었음.
 - 3분기 빨강 파프리카 반입량은 강원지역에서 출하기 기상 악화(일조시간 감소, 고온다습 등)로 생육 및 착과 불량, 낙과 발생이 많았던 전년 대비 작황 양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28,200원) 11% 상승한 31,400원/5kg이었음.
 - 이는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생육기 고온, 일조시간 감소 등으로 생육 및 착색 지연, 과 비대가 부진하였기 때문임.
 - 11월 출하량은 강원지역에서 9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착과율 저조 및 과 비대가 부진하고, 영·호남지역에서 정식시기를 늦춰(8→9월) 출하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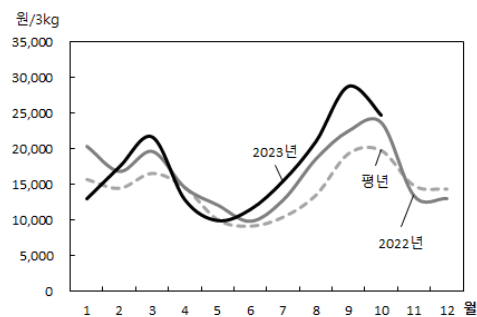
- 12월 출하면적은 강원지역과 전북 남원지역에서 토마토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고,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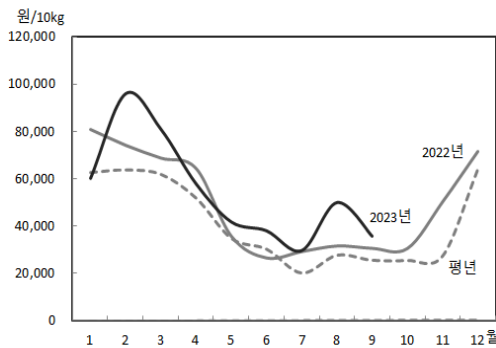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3,700원/10kg, 8월 39,000원, 9월 51,3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26,900원) 대비 41% 상승한 38,000원/10kg이었음.
 - 3분기 일반토마토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름철 기상 악화(잦은 비, 고온 등)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12,900원/3kg, 8월 18,600원, 9월 22,5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18,100원) 대비 20% 높은 21,700원이었음.
 - 3분기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여름철 작황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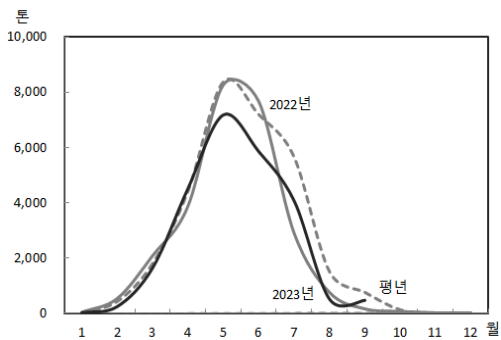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35,300원) 대비 48% 상승한 52,200원/10kg이었음.
 - 11~12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나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었던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10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생육 지연 등으로 출하량이 줄고, 소비는 원활하여 전년(23,700원) 대비 4% 높은 24,700원/3kg이었음.
 - 11~12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경기 평택 등)에서 출하가 원활했던 전년 대비 작황이 부진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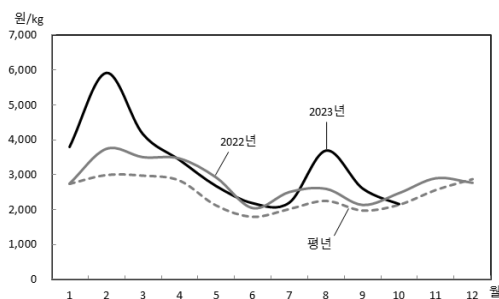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3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9,800원/10kg, 8월 50,000원, 9월 35,8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38,500원/1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였음.
 - 참외 3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음. 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름철 대체 과일 가격이 상승하였고, 소비가 원활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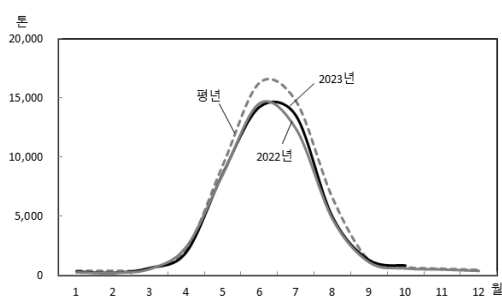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박 반입량 동향



- 2023년 3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190원/kg, 8월 3,690원, 9월 2,600원이었음. 3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2,420원) 대비 17% 상승한 2,830원이었음.
 - 3분기 수박 반입량은 재배면적이 늘었으며, 병·바이러스 피해가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음.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대체 과일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202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2,480원) 대비 13% 하락한 2,150원/kg이었음.
 - 11~12월 수박 출하량은 충청지역과 영남지역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6)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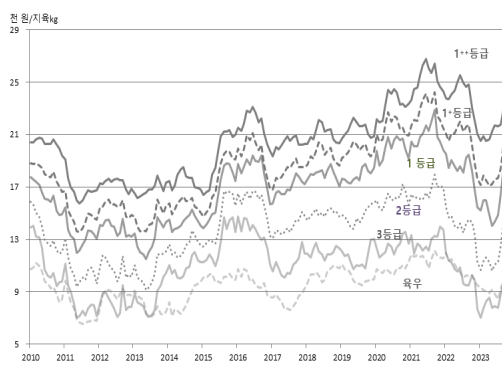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농장, 천 마리

구분	22년			23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P
사육 농장수	93	92	92	91	89	88
총 마릿수	3,734	3,752	3,727	3,632	3,749	3,712
가임 암소	1,648	1,691	1,702	1,662	1,673	1,714

주: 2023년 9월은 잠정치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3/4분기 동향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입식 마릿수와 암소 도태 증가로 6월(374만 9천 마리)보다 1.0% 감소한 371만 2천 마리며, 전년 동월(375만 2천 마리)보다 1.1% 감소
 -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356만 2천 마리, 육우 15만 마리
 - * 한육우 가임암소 마릿수 171만 4천 마리(전년 동월 169만 1천 마리보다 1.3% 증가)
 - 3분기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전분기 15,589원/자육kg보다 11.7% 상승한 17,409원(전년 동기 19,592원보다 11.1%, 평년 동기 19,359원보다 10.1% 하락)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강지석(jskang@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전문연구원, 김태환(kimth3368@krei.re.kr), 김지수(jisusu@krei.re.kr), 정진주(pearlj@krei.re.kr), 안서연(s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한우) 4/4분기 전망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55만 7천 마리)보다 1.8% 감소한 349만 2천 마리 전망
 - 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6,500~17,500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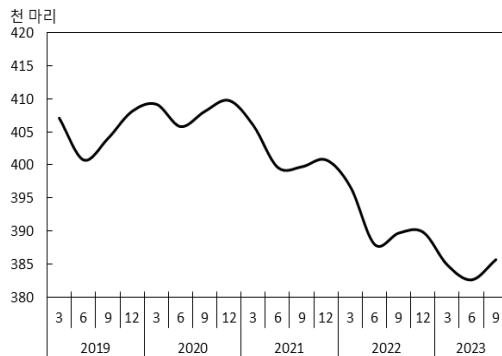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구분	2022년(A)	2023년	2023년(B)	B/A
사육 마릿수	12월 355만 7천 마리	9월 357만 9천 마리	12월 349만 2천 마리	-1.8% 내외
평균 도매가격 (자육kg)	4분기 17,452원	3분기 17,409원	4분기 16,500~17,500원	-2.3% 내외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9월호(23.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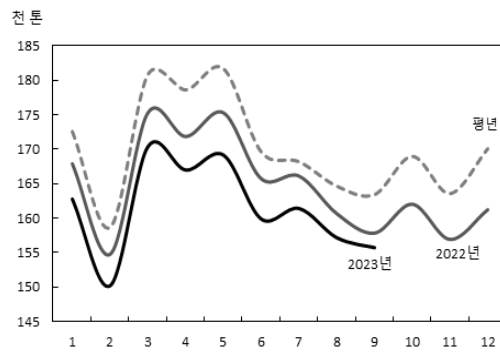
6.2. 젓소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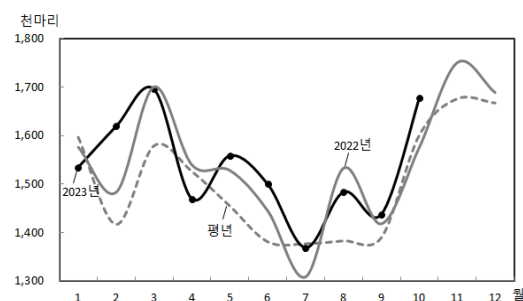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낙농진흥회

- 3/4분기 동향
 - 2023년 6월 젓소 전체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38만 6천 마리, 착유우 마릿수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19만 3천 마리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7만 4천 톤
- 4/4분기 전망
 - 2023년 12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2% 내외 감소한 38만 4천~38만 6천 마리 전망
 - 4분기 원유 생산량은 림피스킨병 백신 접종 영향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0.7% 내외 감소한 47만 5천~47만 8천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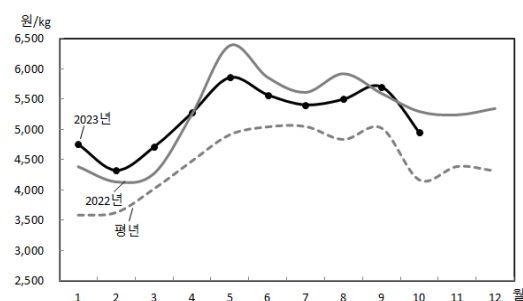
6.3. 돼지

돼지 도축 마릿수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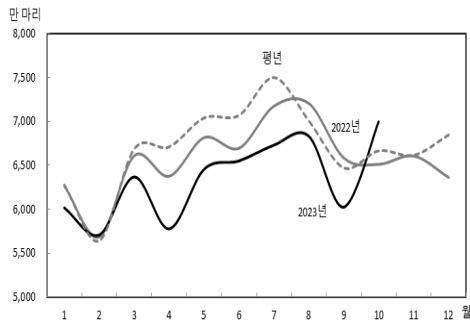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 2023년 8월 말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자돈(1.7%) 및 육성돈(3.8%)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1,222만 2천 마리,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96만 7천 마리(이력제)

- 3분기 도축 마릿수는 1분기 모든 감소하였으나 MSY 향상으로 전년 동기(426만 마리) 대비 0.7% 증가한 429만 마리
- 3분기 재고 포함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5,721원) 대비 3.1% 하락한 5,543원/kg
- 4/4분기 전망
 - 4분기 도축 마릿수는 작업일수 감소로 전년(501만 마리) 대비 소폭(0.4%) 감소한 500만 마리로 전망
 - 4분기 도매가격은 재고 포함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5,294원) 대비 하락한 4,800~5,0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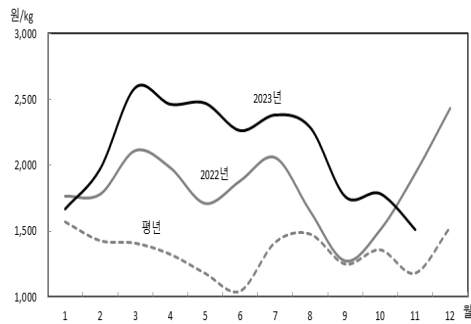
6.4. 육계

육계 도축 마릿수 동향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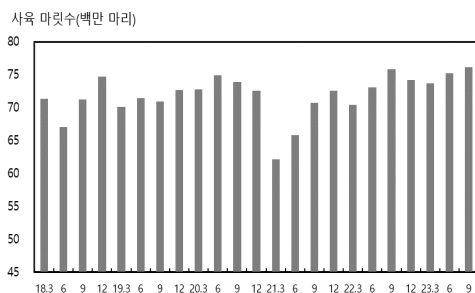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3/4분기 동향
 - 8월 말 기준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65만 7천 마리
 - 3분기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1억 9천 6백만 마리
 - 3분기 평균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28.9% 상승한 2,144원/kg

- 4/4분기 전망
 - 9월 말 기준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입식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465만 마리 추정
 - 10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6,994만 마리, 평년 대비 4.9% 증가
 - 11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내외 증가한 6,642~6,774만 마리 전망
 - 12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3.5% 내외 증가한 6,521~6,649만 마리 전망
 - * 11~12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 및 수입종란의 시장 공급으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11~12월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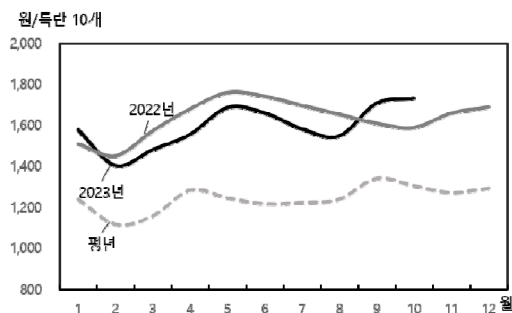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 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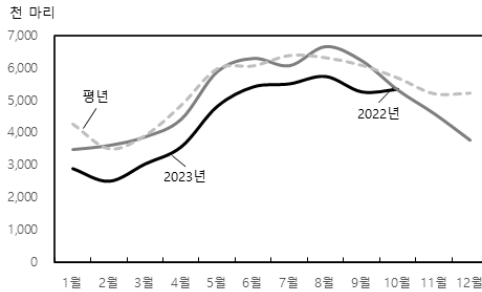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 9월 산란계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3%, 5.7% 증가한 7,613만 마리며,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 2.2% 증가한 5,429만 마리
 - 9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 평년 대비 1.9% 대비 증가한 22만 톤
 - * 산란 초기 사료는 전년 대비 3.9% 감소, 산란 중기는 14.3% 증가, 산란 말기는 17.5% 증가
 - 3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15.1% 증가한 1,480만 마리,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12.7% 증가한 944만 마리
 - 3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4% 하락한 1,615 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4/4분기 전망
 - 4분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도태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 증가 전망
 - 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사육 마릿수 증가하나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계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한 1,700원 내외/특란 10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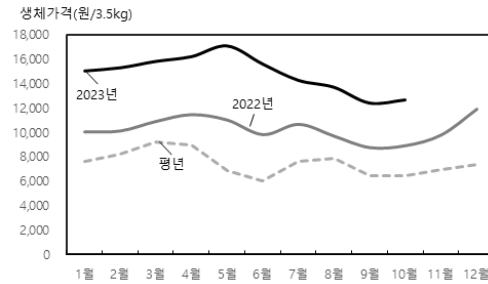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축 마릿수 동향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2018년 2월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 9월 오리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880만 6천 마리, 육용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805만 9천 마리인 반면,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74만 7천 마리
- 3분기 오리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653만 2천 마리, 3분기 오리 산지가격은 출하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38.6% 상승한 13,508원/생체3.5kg

• 4/4분기 전망

- 4분기 오리 도축 마릿수는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11~12월 오리 산지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하나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기별로 외식 부문에서의 농축산물 소비현황 및 구매 의향을 파악하여 농축산물 소비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음식점의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3.3%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는 19.1%, 300m² 초과는 7.6% 순서로 나타남.
 - 사업 형태는 응답자의 83.9%가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라고 응답한 음식점이 가장 많았음.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배현정(bhj923@krei.re.kr) 연구원, 이형용(lhy2813@krei.re.kr) 전문위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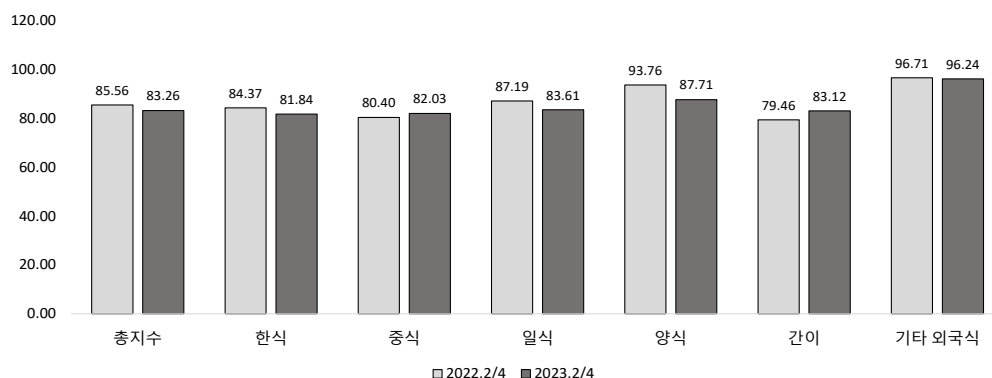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 유형	한식	149	45.2
	분식	60	18.2
	중식	43	13.0
	양식	42	12.7
	일식	36	10.9
면적	1~100㎡ 이하	242	73.3
	101~300㎡ 이하	63	19.1
	300㎡ 초과	25	7.6
사업 형태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	53	16.1
	단독개인점포	277	83.9
직원 수	1~3명 이하	264	80.0
	4~5명 이하	38	11.5
	6명 이상	28	8.5

2. 음식점업 경기 동향

- 2023년 2/4분기 통계청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함.
 -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간이와 중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2.0% 증가하였으나, 양식과 일식, 한식, 기타 외국식은 각각 6.5%, 4.1%, 3.0%, 0.5% 하락함.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업종별)



주: '간이'는 기타 간이 음식점업을 의미하며, 제과점업, 치킨 전문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2023년 3/4분기 음식점 경기 동향은 2.90, 매출 동향은 2.9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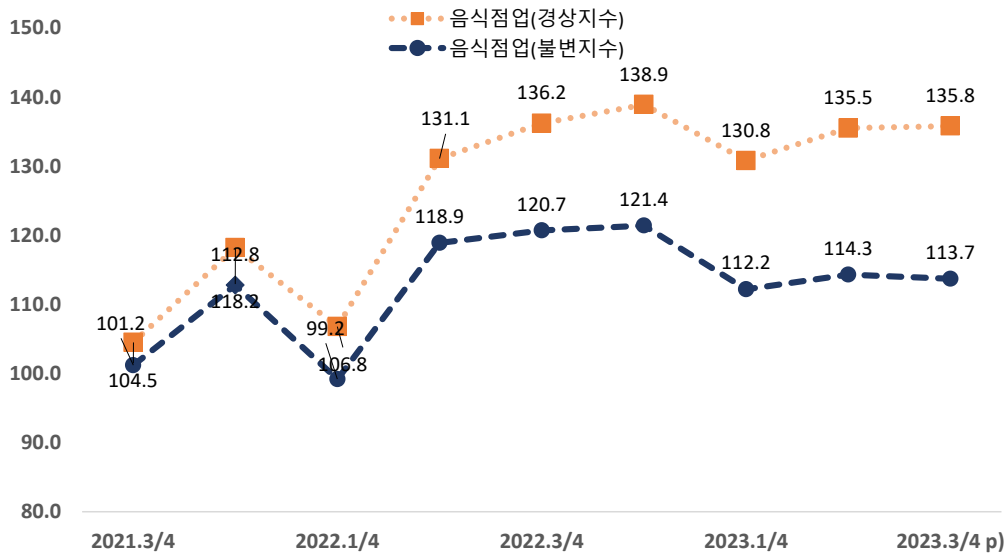
2023년 3/4분기 음식업 동향(5점 척도 기준)

경기 동향	매출 동향
2.90	2.98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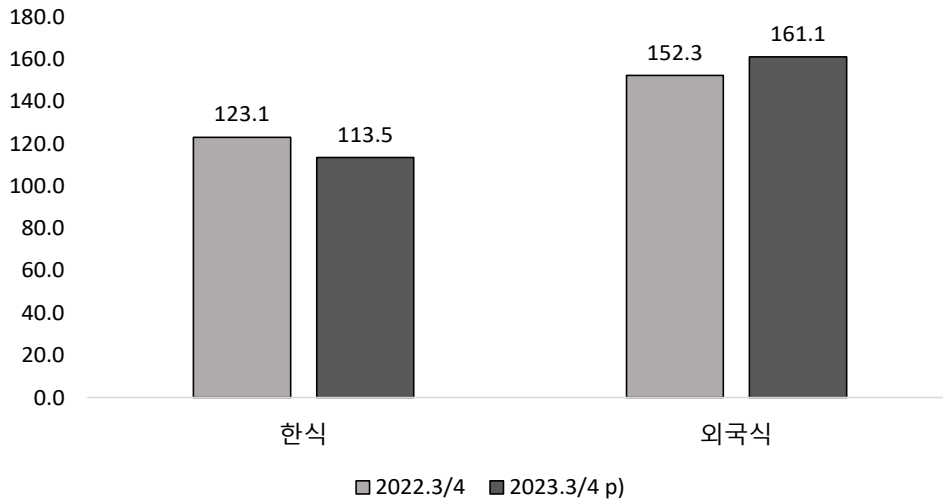
-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음식점업은 경상지수와 불변지수 모두 각각 0.3%, 5.8% 하락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한식은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한 반면, 외국식은 5.8% 증가함.

서비스업생산지수(음식점업)



자료: 통계청(각 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 서비스업생산지수(음식점업, 불변지수)



자료: 통계청(각 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음식점업체들의 2023년 4/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 지수는 99.61(2022년 4/4분기=100)로,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3/4분기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

- 2023년 3/4분기 쌀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였고, 감자는 0.4% 증가함.
 - 쌀의 월평균 구매량은 음식점업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구매량이 다소 감소함.

곡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5	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엽근채소류, 양념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배추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배추김치, 당근, 양배추는 각각 2.0%, 0.6%, 0.2% 증가함.
 - 고춧가루, 양파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0.8% 증가하였으나, 대파와 마늘은 각각 0.4%, 0.3% 감소함.
 - 건고추 월평균 구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구매량이 감소하였으나, 고춧가루는 증가하였음.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엽근채소	증감률	양념채소	증감률
배추	-1.2	건고추	-26.7
배추김치	2.0	고춧가루	1.8
무	0.1	마늘	-0.3
당근	0.6	양파	0.8
양배추	0.2	대파	-0.4

주: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표본 업체(330개) 중 1.1%는 건고추, 98.9%는 고춧가루 형태를 사용한다고 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음식점 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의 국내산 원산지 구매 비중은 2023년 2/4분기 대비 각각 12%, 16%, 21% 증가하였음.
 - 중국산 마늘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점의 중국산 사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통마늘 원산지 비중

단위: %

구분	2023년 2/4분기	2023년 3/4분기
국내산	57.1	64.2
중국산	42.9	35.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각 분기),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오이가 4.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애호박이 2.9%, 풋고추는 0.9% 증가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0.9	4.3	2.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닭고기, 쇠고기, 계란, 오리고기, 돼지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1.5%, 1.1%, 0.7%, 0.3% 증가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1.5	0.3	3.9	0.7	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매 비중을 조사한 결과, 닭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증가함.
 -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p, 5.4%p 증가하였음.
 - 닭고기의 전년 동기 대비 국내산 비중은 4.3%p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감소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매 비중

단위: %

구분	2022년 3/4분기					2023년 3/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9.5		71.7		18.8	17.1		64.8		18.2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2.3	10.8	8.7	13.2	3.0	67.7	13.1	6.6	8.6	0.9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태국산
	85.3		6.3	7.2	1.1	81.0		3.3	13.8	1.9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각 분기),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4. 4/4분기 주요 농축산물 예상 구매량

- 2023년 4/4분기 쌀의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고, 감자는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5	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음식점의 2023년 4/4분기 주요 채소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3/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배추의 4/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배추김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건고추와 마늘, 대파의 4/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각각 16.0%, 0.9%, 0.6% 감소하고, 고춧가루와 양파는 각각 1.1%,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엽근채소	증감률	양념채소	증감률
배추	-2.4	건고추	-16.0
배추김치	1.5	고춧가루	1.1
무	0.0	마늘	-0.9
당근	0.0	양파	0.4
양배추	0.7	대파	-0.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4/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1.7	3.9	2.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4/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쇠고기, 돼지고기는 감소하고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축종별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닭고기와 계란, 오리고기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0%,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2.8%,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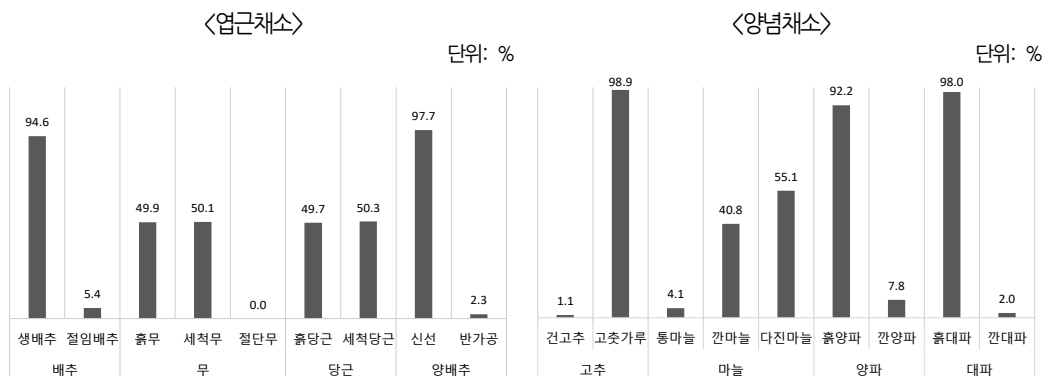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2.8	-2.5	3.7	0.4	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5. 채소류 구매 형태

-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음식점 업체가 원물 형태로의 구매를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대파(98.0%), 양배추(97.7%), 배추(94.6%), 양파(92.2%) 등이 있음. 반면, 고추, 마늘, 당근, 무는 주로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음.
 - 마늘 중 통마늘과 깎마늘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다진마늘은 5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매 형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4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특별주제

- ① 농촌 청년의 생활 여건과 시사점
- ②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농촌 청년의 생활 여건과 시사점¹⁾

마상진*, 박영구**

1. 농촌 청년 현황과 전망

- 202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1,4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농촌의 청년은 232만 명으로 전체 농촌 주민(976만 명)의 23.7%를 차지해 도시(29.5%)에 비해 청년 비율이 낮음.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청년 인구			전체 인구
		19~29세	30~39세	소계	
인구	도시	6,440,197 (15.3%)	5,957,984 (14.2%)	12,398,181 (29.5%)	42,065,303 (100.0%)
	농촌	1,169,883 (12.0%)	1,148,817 (11.8%)	2,318,700 (23.7%)	9,763,833 (100.0%)
	전체	7,610,080 (14.7%)	7,106,801 (13.7%)	14,716,881 (28.4%)	51,829,136 (100.0%)

자료: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농촌 청년 중에서도 성별로는 여성이 적었는데, 30대보다는 20대 이하 청년 여성이 더 적었음. 청년층 내 여성 비율은 농촌이 42.1%로 도시(48.4%)에 비해 낮았음.

1) 본고는 마상진 외(2022)의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1/2차년도)’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msj@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ygpark@krei.re.kr)

- 2000~2020년 기간 동안 총인구는 584만 명(12.7%)이 증가하였으나 청년 인구는 235만 명 감소(-13.8%)하였음. 이 기간 청년 인구 변화율은 농촌이 -18.5%로 도시(-12.9%)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음.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변화 동향(2000~2020)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변화율		
					'00~'20년	'10~'15년	'15~'20년
전국	17,070,121	15,066,043	15,216,963	14,716,881	-13.8	1.0	-3.3
도시	14,226,402	12,947,011	12,834,915	12,398,181	-12.9	-0.9	-3.4
농촌	2,843,719	2,119,032	2,382,048	2,318,700	-18.5	12.4	-2.7
읍	1,307,719	1,197,309	1,286,375	1,338,885	2.4	7.4	4.1
면	1,536,000	921,723	1,095,673	979,815	-36.2	18.9	-10.6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 2010년~2015년 기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효과로 도시 청년은 감소(-0.9%)한 반면, 농촌 청년은 잠시 증가(+12.4%)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2015년 이후 다시 감소(2015년 대비 2020년 2.7% 감소)하였음.
- 청년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 총인구 중 청년 인구(20~39세) 비율은 2020년 약 27.4%에서 2039년 처음 20% 아래로 내려가 19.5%, 2050년 1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변화 전망(2020~2050)

단위: 만 명, %

구분		2020년	전망치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청년 인구 (비율)	전국	1,421.3 (27.4)	1,289.6 (25.1)	1,208.3 (23.6)	1,094.2 (21.5)	948.1 (18.9)	824.0 (16.8)	735.4 (15.5)
	도시	1,210.7 (28.7)	1,103.1 (26.3)	1,033.1 (24.7)	932.7 (22.4)	807.0 (19.5)	701.8 (17.3)	626.9 (16.0)
	농촌	210.5 (21.8)	186.5 (19.6)	175.2 (18.7)	161.5 (17.6)	141.1 (15.9)	122.2 (14.3)	108.4 (13.3)

주 1. 청년 인구는 20~39세

2. ()은 지역별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2020년 청년 인구는 1,421만 명, 2039년 처음 1,0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50년도 7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같은 시기 청년 인구에 비해 2.5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농촌 청년 인구(20세~39세)는 동기간 210.5만 명에서 108.4만 명으로 48.5%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농촌 인구 중에 청년 인구 비율은 동기간 21.8%에서 13.3%로 감소할 전망이다²⁾.

2) 본 연구는 이보경(2019)이 제시한 코호트 요인법 기반 500m 격자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방법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전망치를 분석함.

2. 농촌 청년 생활 실태

2.1. 경제 부문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농촌이 64.0%로, 도시(59.8%)보다 높지만, 청년 취업자 비율은 농촌이 65.3%로 도시(65.5%)와 거의 차이가 없었음.

농촌과 도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종사상 지위			청년 취업자			전체 취업자		
			농촌	도시	청년 전체	농촌	도시	전체
임금 근로	상용		40.1	44.2	43.6	26.2	33.8	32.4
	임시		12.2	11.4	11.5	9.5	10.2	10.1
	일용		1.7	1.7	1.7	2.5	2.7	2.7
	소계		54.0	57.3	56.8	38.2	46.8	45.2
비 임금 근로	경영주	유고용	1.5	1.9	1.9	2.5	2.9	2.8
		무고용	5.3	4.3	4.4	16.5	7.6	9.2
	무급가족종사		3.3	0.6	1.0	5.9	1.4	2.2
	소계		10.1	6.8	7.3	24.9	11.9	14.2
	일시 휴직		1.2	1.4	1.4	0.9	1.1	1.1
계			65.3	65.5	65.5	64.0	59.8	60.5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촌 일자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는 농림어업(전체 주민의 22.8%가 종사)이지만, 청년의 경우는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농림어업보다 많았음. 도시 청년과 비교할 경우 농촌 청년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분야는 적었음.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농촌은 도시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많고(농촌 24.9%, 도시 11.9%) 임금근로자는 적었는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자가 적었음(농촌 26.2%, 도시 33.8%). 종사상 지위 분포의 도농 간 차이는 청년층에서도 마찬가지임.
- 청년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농촌이 도시보다 낮았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농촌은 248.4만 원으로 도시(277.8만 원)의 89.4%였고, 청년의 경우 농촌이 247.6만 원으로 도시(261.6만 원)의 94.6%였음.

농촌과 도시의 임금근로자 근로소득 및 노동시간

구분		청년 임금근로자			전체 임금근로자		
		농촌	도시	청년 전체	농촌	도시	전체
월 임금 (만 원)	정규직	277.7	299.1	333.6	311.3	337.2	296.4
	비 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231.8	246.5	253.7	241.5	256.0
		시간제 근로자	103.5	94.0	89.1	77.3	91.6
		비전형 근로자	211.6	205.7	196.7	187.1	198.6
		소계	184.7	178.3	176.9	163.7	179.5
	전체	247.6	261.6	273.4	248.4	277.8	259.9
주당 노동 시간 (시간)	정규직	39.5	38.2	38.4	39.5	38.4	38.6
	비 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41.2	38.6	39.0	39.4	39.2
		시간제 근로자	20.6	19.7	19.8	16.3	17.8
		비전형 근로자	32.8	35.6	35.1	33.1	34.6
		소계	32.4	30.5	30.8	28.8	30.1
	전체	37.2	35.8	36.0	35.0	35.3	35.2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근로형태별로 보면 대부분 도시보다 농촌의 임금이 적었지만, 청년의 경우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이 도시보다 많았음. 근로 시간당 임금 수준에서도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는 청년의 경우 농촌이 도시보다 많았음. 이는 농촌에서의 계절적인 시간적 노동 수요가 청년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일자리(직무)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높았음. 통계청(2019) 사회조사에 의하면 농촌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3점으로 도시(3.18점)보다 높았음. 청년의 경우 농촌 청년 만족도가 3.25점으로 도시 청년(3.19점)보다 조금 높았음.
- 농촌 청년이 도시 청년에 비해 보수,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은 두 지역 청년 간의 직업 선택 요인 및 일·가정 중시 경향성의 차이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통계청(2019) 사회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적성·흥미, 발전성과 장래성, 근무시간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촌 청년이 도시에 비해 안정성, 발전성과 장래성, 근무시간을 중시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임.

농촌과 도시 가구의 가계수지

단위: 만 원

구분	청년 가구			청년 1인 가구			전체 가구		
	농촌	도시	청년 가구 전체	농촌	도시	청년 1인 가구 전체	농촌	도시	전체
월 소득	301.5	306.3	305.8	331.5	291.5	294.7	269.9	300.2	294.8
월 지출	218.0	227.5	226.4	204.9	213.1	212.4	194.4	225.9	220.2
가처분소득	249.5	250.2	250.1	264.6	239.5	241.5	221.1	240.6	237.1

주: 가구원 균등화는 각 값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
 자료: 통계청(2021). 가계동향조사

- 도농 간 가구소득, 지출, 가처분소득 등을 비교해보면, 농촌이 도시보다 모두 적었고, 청년 가구도 마찬가지였음. 통계청(2021b)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청년 가구의 소득은 농촌이 301.5만 원(도시 306.3만 원), 가계지출은 218.0만 원(도시 227.5만 원), 가처분소득은 249.5만 원(도시 250.2만 원)으로 모두 도시보다 적었음. 하지만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농촌이 소득(331.5만 원)과 가처분소득(264.6만 원) 모두 도시(소득 291.5만 원, 가처분소득 239.5만 원)보다 많고, 가계지출(204.9만 원)은 도시(213.1만 원)보다 적었음.

- 농촌의 자산, 부채는 모두 도시보다 적었고 청년도 마찬가지였음. 국토교통부(2020)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농촌 청년의 자산은 1억 3,043만 원으로 도시 청년(1억 7,458만 원)의 74.7%, 부채 역시 농촌 청년(8,665만 원)이 도시(1억 82만 원)의 85.9% 수준이었음. 대체로 농촌 청년의 자산은 도시보다 적었지만 가계 자산 건전성이 도시 청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소비 생활 만족도를 보면 농촌 청년이 도시 청년보다 대체로 높았음. 통계청(2019) 사회조사를 보면 농촌 청년이 도시보다 소득 만족 비율이 높고(농촌 18.4%, 도시 14.9%) 불만족 비율은 낮았음. 소비 만족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 비슷하였지만(농촌 23.0%, 도시 22.1%), 불만족 비율이 농촌(26.0%)이 도시(30.6%)보다 낮았음.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만족도가 도시보다 높았음(농촌 18.1%, 도시 12.3%).

2.2. 주거 및 복지 부문

- 도시와 농촌의 청년 가구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도시 청년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38.3%)가 가장 높고 농촌 청년 가구는 자가(36.1%)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한편, 청년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은 농촌이 59.3m²으로 도시(52.3m²)보다 넓고, 주택가격은 농촌이 도시의 57.6%, 전세보증금은 61.4%, 월세는 82.2% 수준이었음.

농촌과 도시 가구의 주택면적 및 거주 비용

단위: m², 만 원

구분	청년 가구			청년 1인 가구			전체 가구		
	농촌	도시	청년 가구 전체	농촌	도시	청년 1인 가구 전체	농촌	도시	전체
전용면적	59.3	52.3	53.1	39.2	34.6	35.1	72.4	68.1	68.9
주택가격	20,647.9	35,829.9	33,411.1	17,446.0	29,679.8	27,846.9	15,393.2	37,865.7	32,924.2
전세보증금	10,666.5	17,358.3	16,808.3	6,786.2	9,768.0	9,621.1	10,388.3	18,777.4	18,097.7
보증금	1,474.6	2,032.5	1,980.6	734.2	1,324.5	1,275.9	1,737.6	2,303.3	2,236.1
있는 월세	29.3	36.3	35.7	29.4	36.2	35.7	26.6	33.2	32.5
월세	26.0	31.6	30.6	25.8	30.7	29.8	22.0	29.4	27.9

자료: 국토교통부(2020). 주거실태조사.

-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기간은 농촌이 양호하였음. 농촌은 76.4개월이 소요되어 도시(96개월)보다 20개월 정도가 빨랐으며 청년 가구의 경우도 농촌이 21.4개월이 소요되어 도시(26.1개월)보다 5개월 정도 빨랐음.
- 주거비 부담지수로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과 RIR(월소득대비 월세비율)을 계산한 결과 농촌 청년 가구가 도시보다 양호하였음. 농촌 청년 가구의 PIR은 5.3%로 도시(9.3%)의 57.0% 수준이고, RIR은 16.1%로 도시(23.7%)의 67.9% 수준이었음.
- 청년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주택에 대한 만족은 농촌이 더 높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가 높았음. 국토교통부(2020)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주택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농촌은 9.0%로 도시(9.8%)보다 낮았음.
- 한편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농촌이 17.9%로 도시(11.3%)보다 높았음. 구체적인 주거환경 요인별 만족 정도를 보면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 청년의 불만족 비율이 높고, 주차시설, 소음, 대기오염 등은 도시가 농촌보다 불만족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건강수준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도농 간에는 도시민이 농촌 주민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매우 좋음, 좋음 비율: 농촌 34.1%, 도시 37.4%). 청년층의 경우 농촌은 주관적 건강수준 5점 척도 기준으로 3.37이었고, 도시는 3.25였음.

농촌과 도시의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 수준

단위: %

주관적 건강수준	농촌					도시				
	18세 미만	19~ 39세	40~ 59세	60세 이상	농촌 전체	18세 미만	19~ 39세	40~ 59세	60세 이상	도시 전체
매우 좋음	27.7	8.4	5.2	2.4	7.5	25.6	6.1	3.3	4.9	8.3
좋음	50.2	33.2	24.9	16.3	26.6	44.6	28.9	25.8	21.4	29.1
보통	19.7	45.3	52.5	49.9	46.2	26.7	50.0	55.1	49.3	47.6
나쁨	2.4	12.9	16.3	22.3	16.1	3.1	13.5	13.6	19.8	12.9
매우 나쁨	0.0	0.2	1.1	9.1	3.6	0.0	1.4	2.4	4.6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03	3.37	3.17	2.81	3.18	3.93	3.25	3.14	3.02	3.28

주: *매우 나쁨: 1~매우 좋음: 5
 자료: 질병관리청(2020). 국민건강영양조사

- 하지만 건강과 관련하여 농촌 청년들은 도시 청년에 비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0)에 의하면 농촌 청년은 도시 청년보다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지 않았음(불만 비율 농촌 40.5%, 도시 14.9%).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2020)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였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한 농촌 청년 비율은 9.4%로 도시(7.1%)보다 높았음. 또한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았지만, 청년의 경우는 농촌(49.2%)이 도시(53.2%)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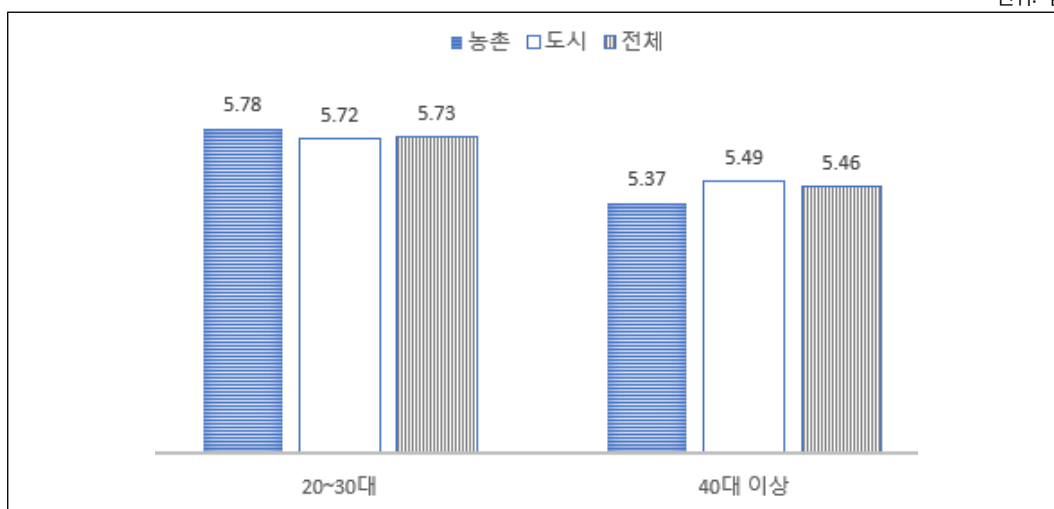
- 한편, 통계청(2020) 사회조사 결과, 청년들이 인식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에 대한 5점 척도 조사 결과, 농촌(3.07점)이 도시(3.13점)보다 낮았고, 범죄 안전(농촌 2.79점, 도시 2.86점),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농촌 3.19점, 도시 3.24점) 수준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2.3. 문화 및 사회생활 부문

- 청년층은 중·노년층보다 여가 생활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농촌 청년의 경우는 더 강했음.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가 삶의 필수라는 인식(7점 척도)은 청년층(5.73)이 40대 이상 주민(5.46)보다 높고, 청년층 내에서는 농촌 청년(5.78점)이 도시 청년(5.72점)보다 높았음. 이러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층과 중·노년층 간의 인식 차이는 농촌(0.41점)이 도시(0.23점)보다 컸음.

농촌과 도시민의 여가가 삶의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

단위: 점



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보통~7: 매우 그렇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빈도가 적었고, 청년도 마찬가지였음.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농촌 청년의 주민의 연간 문화예술행사³⁾ 직접 관람 횟수는 3.5회로 전체 주민보다는 많지만 도시 청년(4.6회)에 비해서는 적었음. 농촌 청년 중 한 번도 직접 관람 경험이 없는 비율은 33.1%로 도시(20.4%)에 비해 많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20b). 농촌은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도시보다 많았음.
-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농촌 청년이 도시 청년보다 낮았음. 문화체육관광부(2020a)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농촌 청년의 여가생활 만족도(7점 만점에 4.42점)는 도시(4.59)보다 낮았음.

농촌과 도시의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청년			전체 주민		
		농촌	도시	청년 전체	농촌	도시	전체
만족 수준	불만족	16.7	15.3	15.5	19.0	16.7	17.1
	보통	37.2	26.8	28.3	36.3	29.0	30.4
	만족	46.1	57.9	56.3	44.7	54.3	5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42	4.59	4.58	4.38	4.53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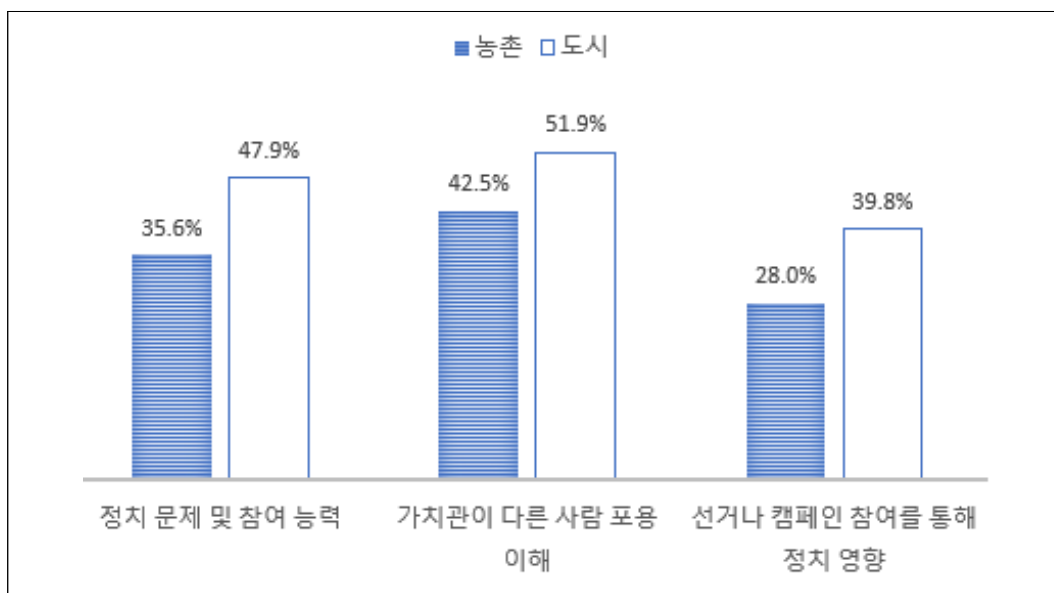
주: 불만족은 7점 척도에서 1~3 응답자, 보통은 4 응답자, 만족은 5~7 응답자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 청년층의 지역사회 단체 참여가 중·노년층보다 저조한 가운데, 농촌 청년의 참여율이 도시 청년보다 더 낮음. 통계청(2019) 사회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의 지역사회 참여율은 63.8%로 전체 주민(66.1%)에 비해 낮았음. 청년은 여가 단체 참여(34.7%, 전체 31.3%)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단체 참여율이 전체 주민에 비해 낮는데, 특히 종교단체, 지역사회모임(반사회, 입주자 대표회 등) 참여율이 낮았음.

3)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오페라, 서양 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영화,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 등을 포함함.

- 청년의 정치 참여 경험은 농촌이 도시보다 대체로 적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⁴⁾에 의하면 SNS를 활용하거나, 배지 착용, 집회나 시위 참여, 직접적인 항의 전화 등 모든 정치 참여 형태에 대해서 70% 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대부분 연 1~2회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청년의 정치 참여는 대체로 소극적이었음. 농촌의 경우 정치 참여의 기회 자체가 부족하고 적극적 참여에 대한 주변 환경(모임 및 시스템) 조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 도시에 비해 정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농촌과 도시 청년의 정치 참여 능력과 인식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4) 이 조사의 청년 대상은 19~34세였다.

- 농촌 청년의 정치 역량 및 효능감도 도시에 비해 대체로 낮았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동일 조사에 따르면 농촌 청년 중 정치 문제 이해·참여 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6%(도시 47.9%),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2.5%(도시 51.9%), 선거나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이 28.0%(도시 39.8%)로 모두 도시보다 낮았음. 농촌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래 집단이 적다 보니, 다수를 차지하는 기성세대에 밀려 제대로 정치 역량과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정치 참여와 정치효능감이 낮은 것과 반대로 농촌 청년은 평소 접촉하는 이웃이 도시보다 많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도시보다 좋았음. 저자의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 청년 중에 매일 지역주민과 접촉이 있는 경우가 74.2%로 도시(68.2%)보다 많았음. 지역 내 기성세대와 교류하는 비율이 농촌은 21.9%로 도시(15.0%)보다 많았지만, 상당수(78.1%) 농촌 청년이 기성세대와 교류가 부족하였음.

3. 요약 및 시사점

-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청년이 갖는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도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업·농촌 분야 정책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농업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연구가 일부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참여 등 종합적인 농촌 청년층의 실태 분석은 거의 전무하였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촌은 현재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데, 농촌의 청년 부족 문제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농촌에는 도시보다 청년이 상대적으로 적고, 성별로는 여성이 더 적었음. 농촌 인구는 향후 2050년까지 매년 5만 명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 감소의 2/3는 청년 인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농촌 인구 중에 청년 인구 비율은 2050년 13.3%로 감소할 전망이다.
- 둘째, 농촌 청년의 객관적 생활 지표는 도시보다 열악하지만 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농촌 청년의 직업 선택 기준, 추구하는 삶의 방식(라이프 스타일)이 도시와 다른 점, 그리고 도시보다 적게 드는 생활비와 양호한 가계 건전성 등 농촌 생활 나름의 장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됨. 하지만 주거환경, 복지과 문화 여건은 도시보다 열악하여 주거환경 만족도, 문화여가 생활 만족도, 사회참여 만족도 등은 도시보다 낮았음.
- 셋째, 청년 세대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서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및 농촌 관련 경험 확대가 필요함.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촌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지 않았고, 일자리 만족, 소득·소비 생활 만족, 주거 만족도 등은 오히려 높았음. 농촌에서의 청년들의 삶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농촌 생활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임. 복지, 문화, 사회참여와 관련한 생활 여건 개선, 다양한 농촌 일자리 마련 등의 보완을 통해 농촌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농촌 삶의 장점을 부각하고 이를 실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시절부터 경험하게 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¹⁾

한이철*

1. 농촌 인구 변화

- 농산어촌 총인구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대도시 근교를 제외한 일반 면 지역이나 원격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농촌 인구 변화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0~2020년 전국 1,404개 읍·면 인구의 변화를 분석함.²⁾
 - 2020년 농촌 인구는 976만 명으로, 2010년 845만 명에서 131만 명 증가하였음. 2020년 우리나라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증가한 총인구 325만 명 중 40.5%가 농촌에서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농촌 인구 증가율은 15.6%인데, 도시(동 지역) 인구 증가율인 4.8%보다 3배 이상 빠른 증가율임.
- 하지만 농촌의 인구증가는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발생함. 수도권과 도시 근교 지역, 읍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면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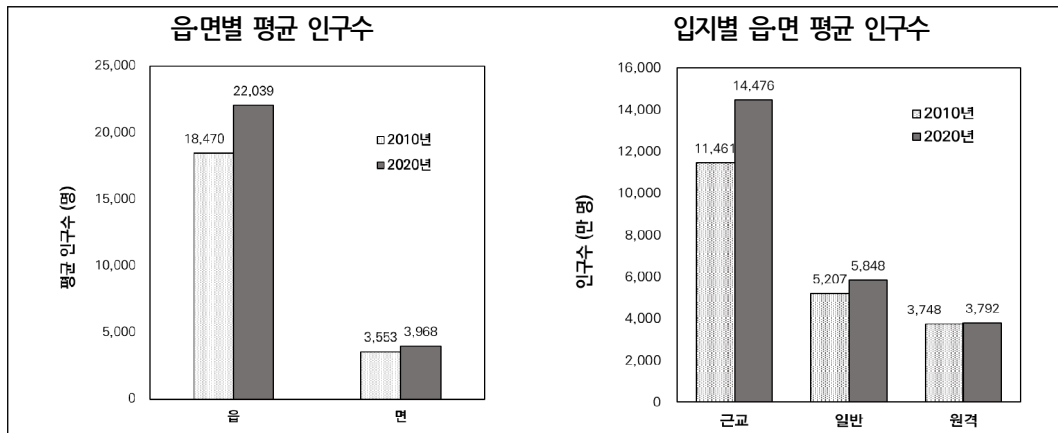
1) 본고는 한이철 외(2022)의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을 기반으로 작성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han@krei.re.kr)

2) 읍·면의 인구 변화는 2020년에 지정된 읍·면을 기준으로 사용함. 다만, 2010~2020년 기간 행정구역이 읍·면에서 동으로 변환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행정구역이 면에서 읍으로 변환된 지역은 2020년 행정구역인 읍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 읍 지역의 인구는 2010년 428만 5천 명에서 2021년 511만 3천 명으로 19.3% 증가하고, 평균 인구는 2010년 1만 8,470명에서 2020년 2만 2,039명으로 3,569명 증가하였음.
- 반면, 전체 1,172개 면 지역 중 52.2%(612개소)에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인구수가 2,000명이 되지 않는 면도 353개소(30.1%)까지 늘어남.
- 수도권 및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더불어 농촌 내에서도 읍·면 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면’ 지역의 위기감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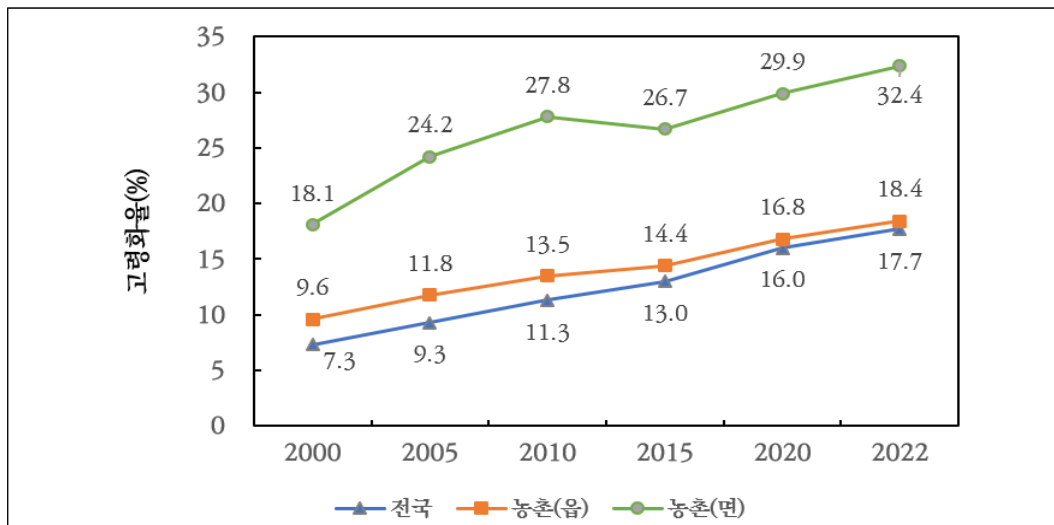
읍·면별/ 입지별 평균 인구수 변화



자료: 한이철 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p.72)

- 농촌의 고령화 심화, 청년 세대의 감소로 인한(특히, 여성) 아동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절벽이 빠르게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적 자원 부족으로 내생적 발전 역량이 감소하고 소멸 위기도 제기됨.
 -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23.0%로 높음. 특히 2020년 기준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0%에 육박하고, 평균 연령 또한 50.9세에 달함.
 - 2015년 대비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31만 명이 증가했지만, 20~40세 인구는 4.7만 명, 15세 미만 인구는 이에 두 배 정도인 8.1만 명이 감소하였음.

농촌 고령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인구감소 농촌의 기초생활시설 공급과 수요 변화

2.2. 농촌의 기초생활시설 현황

- 농촌 기초생활시설은 농촌 지역에서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중 농촌의 면 중심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서비스를 4개 서비스 분류 항목과 세부 항목들로 분류함.
 - 농촌 기초생활시설은 보건의료, 여가, 소매, 일자리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함.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시설 분류

분류	세부 시설
보건의료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 보건소/보건지소
여가	PC방, 노래방, 체력단련시설(헬스장 등)
소매	아·미용업, 세탁소, 목욕탕, 제과점, 음식점(식당 등), 주유소
일자리	직업소개소

주 1. 병원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병원을 포함, 요양병원은 미포함

2. 의원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포함

3. 제과점은 제과점과 푸드트럭을 포함

4.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인허가 받은 식당을 의미하며, 소주방, 카페, 호프/통닭집을 포함함.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미포함

자료: 한이철 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p.72)

- 우리나라의 1,404개 읍·면 중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초생활시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한다고 판단되는, 인구가 감소하는 612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2010~2020년) 기초생활시설의 변화를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수록된 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읍 지역(79개소)의 경우 비록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생활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함.
 - 시설의 운영 여부와 폐업 시기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포함된 각 시설의 인허가 일자, 폐업 일자를 활용하여 판단하였음. 이후 시설의 지리 좌표와 주소를 이용하여 읍·면을 도출하고, 읍·면별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개수와 개업·폐업 시 인구 등을 계산하였음.
- 농촌에서 기초생활시설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촌 지역(면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보건지소는 평균 시설 수가 늘어나고 해당 시설이 없는 면도 감소함.
 - 특히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인구감소 면 지역 중 92%

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보건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 부문인 의원과 약국의 평균 시설 수는 감소하고 있고, 해당 시설이 없는 면의 수도 약 60% 수준으로 매우 높음.

- 농촌에 널리 분포한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 면 지역 기초생활시설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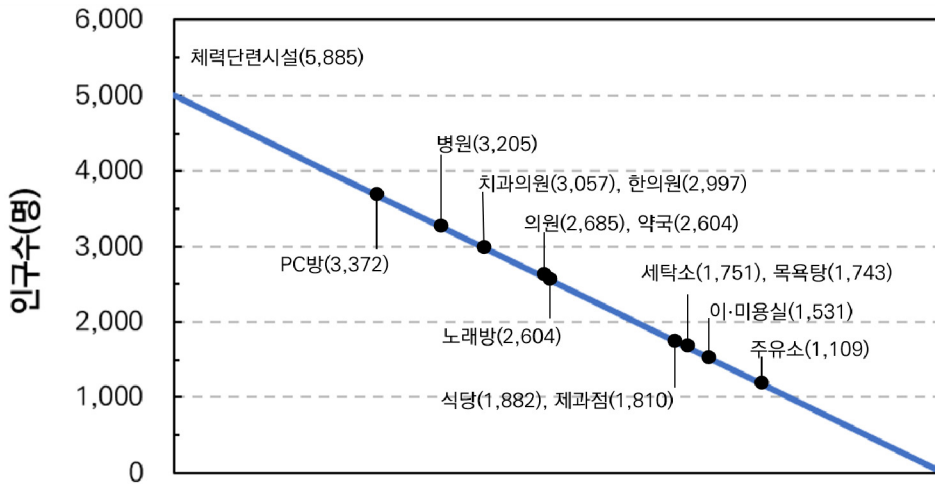
단위: 개소, %, 명

서비스	세부 시설	평균 시설 수		시설이 없는 면 수(비율)		
		2010년	2020년	2010년	2020년	증감률
보건의료	병원	0.16	0.18	547 (89.4)	538 (87.9)	-1.5
	의원	0.73	0.64	375 (61.3)	401 (65.5)	4.2
	치과의원	0.17	0.22	536 (87.6)	523 (85.5)	-2.1
	약국	0.79	0.74	345 (56.4)	362 (59.2)	2.8
	한의원	0.32	0.40	471 (77.0)	448 (73.2)	-3.8
	보건소/보건지소	0.92	0.93	56 (9.2)	49 (8.0)	-1.1
여가	PC방	0.45	0.35	492 (80.4)	525 (85.8)	5.4
	노래방	1.57	1.00	249 (40.7)	353 (57.7)	17.0
	체력단련시설	0.05	0.07	588 (96.1)	581 (94.9)	-1.1
소매	아·미용업	5.42	4.87	57 (9.3)	80 (13.1)	3.8
	세탁소	3.06	2.19	84 (13.7)	137 (22.4)	8.7
	목욕탕	2.64	2.08	81 (13.2)	123 (20.1)	6.9
	제과점	2.44	1.96	91 (14.9)	139 (22.7)	7.8
	음식점(식당 등)	4.43	3.81	86 (14.1)	144 (23.5)	9.5
	주유소	4.03	3.58	18 (2.9)	20 (3.3)	0.3
일자리	직업소개소	2.23	2.05	84 (13.7)	130 (21.2)	7.5

주: 시설의 인허가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자료: 한이철 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p.99)

- 소매 서비스 중, 생활시설이 없는 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음식점과 세탁소, 제과점으로,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 5곳 중 1곳에서는 이 시설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음식점은 612개 면 지역 4곳 중 1곳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면당 평균 음식점 수도 10년 동안 약 0.6개소가 감소함.
 - 세탁소는 10년 동안 평균 약 0.9개소가 줄어들었고, 인구감소 면 지역 중 약 22%에 세탁소가 없음.
- 기초생활시설·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만약 수요가 부족하면 시설·서비스는 폐업하게 되는데, 이때의 인구를 본 연구에서는 ‘임계인구’라고 정의함.
 -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을 대상으로 2010~2020년 각 기초생활시설이 폐업된 시점의 면 인구를 취합하고, 이 폐업 시점 인구들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시설별 임계인구를 계산하였음.
- 기초생활시설별 임계인구를 통해 농촌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개 인구 규모를 도출하였음.
 - 농촌 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들이 폐업하기 시작하면서 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의원과 약국은 거의 동일한 임계인구를 갖는데, 의원 없이 약국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였음.
 - 농촌 면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고, 1,5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면 중심지의 이·미용실이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이 어려워지기 시작함.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 지역 생활서비스 임계인구



주: 임계인구는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에서 2010~2020년간 폐업한 기초생활시설들을 추출하고, 각 시설별로 폐업 시점 인구들의 중위값으로 산출
 자료: 한이철 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p.101)

- 우리나라 1,404개 읍·면 중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읍·면은 전체의 47.4%에 달함.
 -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인구 2,000명 이하 읍·면은 약 25.2%인데 이 지역들은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토 어디에 살든지 우리나라 국민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적절한 기초생활시설·서비스를 공급·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 유입되는 인구가 지역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 농촌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장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기초생활시설·서비스의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변화

- 인구감소에 따른 서비스 시설의 감소 및 폐업 증가로 민간서비스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대한 농촌 주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농촌 주민의 민간서비스 수요는 도시민에 비해 27.9% 높은 44.6%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민간 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반면 공공서비스 수요는 -9.1% 낮고, 도시민의 경우 공공 및 민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비중이 농촌 주민에 비해 15.2%나 높음.

도시·농촌 주민 조사 결과: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항목	도시(N=855)		농촌(N=2,370)		도농간(차)	
	n	%	n	%	n	%
공공서비스(복지시설, 문화시설, 행정시설 등)	443	51.8	1,011	42.7	568	-9.1
민간서비스(병원, 음식점, 학원, 소매점 등)	143	16.7	1,057	44.6	914	27.9
없음(이미 충분함)	175	20.5	126	5.3	-49	-15.2
잘 모름	94	11.0	176	7.4	82	-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도 농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의료 서비스 및 대중교통 여건의 개선 체감은 여전히 저조함. ‘의료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분만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농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3년째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의료 서비스 및 기초적인 접근성 여건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체감 격차는 여전히 지속됨.
- 농촌 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증가함. 농촌서비스 기준 6개 접근성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접근성 평균 시간을 산출한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 접근성 수준 격차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음.

도시 및 농촌 주민의 3년간 주요 여건 만족도 점수 변화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촌 지역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의료 서비스 범위	7.1	7.3	7.3	5.0	5.6	5.1
의료 서비스 수준	6.9	7.2	7.2	5.1	5.7	5.3
분만의료 서비스	6.7	7.0	6.8	4.4	5.2	4.3
대중교통	7.1	7.3	7.2	5.2	5.7	5.3
통신시설	7.6	7.7	7.8	6.1	6.7	6.9
생활 인프라	7.3	7.7	7.5	5.9	6.4	6.7

주: 2020년부터 2022년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각 조사 11점 척도(0~10점)로 조사

-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의 효율 증진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중교통 노선 확충,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증차 혹은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확충, 농촌 교통 취약지역으로 한정된 자가용 유상운송(우버 등)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촌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서비스 여건(2019년)에서 경제적 이유(2022년)로 변화함. 농촌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사유는 가족이나 직장 문제, 열악한 주택 여건 문제, 자녀교육 환경 문제 순임.

이주 희망 농촌 주민의 이주하려는 주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 비율(%)	
	2020	2022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8.1	15.4
(개인 희망이 아닌)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9.6	31.2
교통이 불편하다	10.3	6.6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10.6	12.9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9.7	8.1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18.0	13.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각 연도.

3. 요약 및 시사점

-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기보다 ‘적응’해야 할 삶의 조건임. 농촌의 인구감소 적응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는 소득과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보장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농촌의 인구 변화는 공간적으로 고르게 일어나지 않고,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하였음. 인구 4,000~10,000명 사이의 농촌 중소 중심지에서 인구감소가 현저하고, 특히 일반·원격 농촌의 거점·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음. 이는 농촌중심지가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로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실제로 인구감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고, 마트, 이·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소매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편임. 또한 주민들은 가장 취약한 서비스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소매 서비스를 꼽았음.
- 인구가 감소하면서 면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 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약 25%에서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촌의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운영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인구감소 시대에는 시설·서비스의 민간 공급이 축소되고 세수 감소, 복지지출 증가, 기존 생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역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
- 농촌 정책은 인구와 기초생활 서비스의 양(量)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기초생활 서비스의 축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서비스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KREI 농업관측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061-820-2371 Fax.061-820-2409
<http://www.krei.re.kr>